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 석사 학위논문

국가 서사로서 『한밤의 아이들』에서
파드마의 역할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심 희 정

국가 서사로서 『한밤의 아이들』에서 파드마의 역할 연구

지도교수 유 두 선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 어 영 문 학 과

심 희 정

심희정의 문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7월

위 원 장 _____ 조 철 원 (인)

부 위 원 장 _____ 손 영 주 (인)

위 원 _____ 유 두 선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의 『한밤의 아이들』(*Midnight's Children*)(1981)에 등장하는 파드마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작품은 중요한 탈식민 소설로 평가받으면서 식민지배로 야기된 탈식민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작품에서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살림(Saleem Sinai)이 자신의 탄생과 성장이 인도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살림이 서술하는 자신의 삶과 독립 이후 인도의 역사적 사건들은 직접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많은 평자들은 이 작품을 일종의 국가 서사로 보고 있다. 본 논문 또한 이 작품이 국가 서사라는 데에 동의하며 특히 이 국가 서사가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작품 속 여성 인물 중 하나인 파드마(Padma)라는 인물의 역할에 주목할 것이다. 작품을 국가 서사 문제와 관련지을 때, 비평의 대부분은 서술자인 살림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일 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드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파드마의 개입이 서사를 추동하고 지연시키면서 탈식민 인도에 새로운 서사의 형태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2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파드마의 개입과 서사의 추동이 여담을 잘라내고 단선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서사의 흐름을 살림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청자인 파드마가 개입하면서 독단적인 서술의 흐름을 막고자함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입과 청자로서의 역할이 작품에 탈식민 소설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을 확인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파드마의 개입이 거대한 역사서사에서 소외되거나 빠질 수 있는 주변부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파드마는 살림의 서사에 질문이나 의심을 통해 개입함으로써 국가 형성 서사라는 거대서사가 놓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환기시키며 이를 통해 국가가 단일한 국가의 개념에서 탈피하도록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많은 계층과 국가의 형성을 위해 희생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살림의 관점에 의해 쓰인 서사를 통해 무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드마의 개입은 국가 서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써 독립 후 인도의 내부의 탈식민적 상황을 포착하고 있음을 살펴보겠다.

마지막 4장에서는 파드마의 개입을 통해 살림이 궁극적으로 탈식민 인도에 제시하고자 했던 서사의 완성에 성공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작품의 결말에 나타나는 살림의 몸의 부서짐을 평가하고자 한다. 산산 조각난 살림의 몸이 국가 서사 구성에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짐을 통해 인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탈식민 인도의 국가 서사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하고자 한다.

주요어: 살만 루시디, 한밤의 아이들, 파드마, 살림, 국가 서사, 여성 청자, 탈식민 여성, 탈식민 국가 서사, 국가 형성 서사와 여성

학번: 2011-23081

목 차

국문초록

1. 서론	1
2. 여성 청자로서 파드마의 개입	22
3. 파드마와 서발턴	40
4. 파드마와 파편화된 국가 서사	57
5. 결론	68
인용문헌	71

Abstract

1. 서 론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의 『한밤의 아이들』 (*Midnight's Children*)¹⁾²⁾(1981)은 중요한 탈식민 소설로 평가받는 작품으로서 식민지 배로 야기된 탈식민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인도의 문화적 혼종성(hybridity), 탈식민 국가 내부의 계급 문제,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서사의 구조, 언어의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살림(Saleem Sinai)이 자신의 탄생과 성장이 인도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MC 3), 살림이 서술하는 자신의 삶과 독립 이후 인도의 역사적 사건들은 직접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많은 평자들은 이 작품을 일종의 국가 서사로 보고 있다.³⁾ 본 논문 또한 이 작품이 국가 서사라는 데에 동의하며 특히 이 국가 서사가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작품 속 여성 인물 중 하나인 파드마(Padma)라는 인물의 역할에 주목할 것이다. 작품을 국가 서사 문제와 관련지을 때, 비평의 대부분은 서술자인 살림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일 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드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본 작품은 독립 전후의 인도를 배경으로 한다. 인도의 독립의 순간에 태어난 서술자인 살림이 탄생한 1947년을 중심으로 대략 그 이전 30년과 그 후 30년의 인도가 작품의 주요 시간적 배경이다. 거나

1) 이하 MC로 표기.

2) 이하 MC의 한국어 번역은 김진준 역, 『한밤의 아이들 1,2』, 문학동네, 2011을 참고함.

3) 작품을 국가 서사의 관점에서 분석한 비평가들은 코테나르(Neil Ten Kortenaar), 트라이베디(Harish Trivedi)와 크로닌(Richard Cronin)과 같은 비평가가 있다. 코테나르는 인도의 탈식민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을 중심으로 작품에 대한 기존의 비평을 소개 한다(Kortenaar 229-51). 트라이베디와 크로닌과 같은 비평가는 이 작품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작품이며 루시디가 인도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외부인의 시선으로 인도를 바라보고 있음을 비판 한다(Cronin 135; Trivedi 69).

(Abdulrazak Gurnah)는 작품을 세 개의 시기로 나눈다(Gurnah 92-96). 첫 번째는 1915년부터 1947년까지의 기간인데 이 시기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배 하에 있었던 시기로 살림의 할아버지인 아담 아지즈(Aadam Aziz)와 할머니인 나심 아지즈(Naseem Aziz, the Reverend Mother)의 결혼 생활과 독립 전의 인도의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이 서술된다. 두 번째 시기는 1947년부터 1965년 사이의 시기로 1947년 8월 15일 자정 살림이 인도의 독립과 함께 탄생하게 된다. 자정에 가깝게 태어난 아이일수록 신비한 능력을 타고나게 된다고 하는데 살림과 시바(Shiva)라는 아이가 그 무렵에 태어나게 되어 가장 뛰어난 초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시바는 부유한 아지즈 집안의 자손인데 이 집안의 보모인 메리(Miss Mary Pereira)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해버림으로써 두 아이의 운명은 바뀌게 된다. 거나가 구분하는 작품의 마지막 시기는 1970년부터 1978년 사이를 다루고 있다. 인도의 독립 바로 전날 신생국 파키스탄이 탄생하는데 1965년에 발발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전쟁이 세 번째 시기의 시작이다. 살림은 전쟁 중에 은제 타구(silver spittoon)에 머리를 다쳐 5년간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 시기에 들어서는 자신이 기억하는 70년대부터의 기억만을 서술하게 된다. 이 시기는 동 파키스탄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해 방글라데시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시기로 이전의 기억을 상실한 채 살림은 동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벌이는 전쟁을 목격하고 있다고 거나는 정리한다(Gurnah 96). 덧붙여 이 마지막 시기에는 마녀 파르바티(Parvati-the-witch)에 의해 살림이 기억을 되찾고 다시 인도로 돌아와 인디라 간디 여사(Mrs Indira Gandhi)의 긴급조치(the Emergency)정책과 독재를 겪게 된다. 이 때 살림의 서술은 과거에서 작품상의 현재에 도달하게 된다. 작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살림은 거나가 세 시기로 나누고 있는 인도 60년 역사에 대한 기술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청자인 파드마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실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을 인도 역사의 알레고리로

보는 시각은 살림 스스로가 자신이 인도 역사에 수감 채워져 있다고 말하는 장면(MC 3), 혹은 자신이 인도를 반영하는 거울(MC 139)이라고 밝히는 부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제임슨(Fredric Jameson)은 이미 제3세계 소설을 국가의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제3세계 문학을 국가서사의 알레고리로 읽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국적 자본주의 시대의 제3세계 문학」("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나는 모든 제3세계 텍스트들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알레고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다시 말해 제3세계 텍스트들은 내가 **국가적 알레고리**라고 부르는 것으로 읽어야 하는데, 특히 소설과 같이 주로 서구의 재현 방식에서 발전해 나온 양식의 경우에는 더욱 그래야한다고 생각한다.

All third-world texts are necessarily, I want to argue, allegorical, and in a very specific way: they are to be read as what I will call *national allegories*, even when, or perhaps I should say, particularly when their forms develop out of predominantly western machineries of representation, such as the novel. (Jameson 69)

제임슨은 제3세계 소설 작품들을 국가적 알레고리로 읽어야만 한다고 위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제3세계에서 나온 소설 작품들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존의 서구 비평이론의 틀에 맞추어 제3세계 소설 작품들을 볼 때, 그것들의 문학적 가치가 폄하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제임슨은 제3세계 소설

작품들을 국가적 알레고리로 읽어야 그 작품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문화적 맥락과 그에 따른 가치를 정당하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제임슨을 비판하는 평자들은 제임슨이 쓴 "필연적"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서구의 소설형태와 제3세계 텍스트를 나누어버림으로써 오리엔탈리즘을 생산한 서구의 기존 담론과 제임슨의 주장이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즉, 제임슨이 제3세계 텍스트의 특성을 규정짓는 것 자체가 오리엔탈리즘의 재생산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제임슨이 자신의 글에서 밝히려는 것은 제3세계에서 생산되는 텍스트, 예를 들면 소설과 같은 글이 공적인 영역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제3세계의 공적 영역은 제1세계의 지배와 그 이후 제3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장이다. 제3세계의 개인은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변화한 자신들의 문화와 정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 영역의 문제는 공적 영역의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탈식민 국가에 속한 개인에게 야기되는 문제들은 제1세계가 제3세계에 남기고 간 영향력에 대한 갈등으로 풀이된다. 제임슨이 제3세계 소설을 국가적 알레고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결합이라는 제3세계 텍스트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민 지배 이후 변한 제3세계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결합 때문에 아무리 서구의 소설의 형태를 빌려 개인의 내면을 탐색하는 내용의 텍스트가 생산되더라도 탈식민의 상황에 대한 국가적 알레고리로 읽어야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제임슨의 주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림의 이야기는 개인의 사적인 서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지배와 독립의 역사가 반영된 공적 서사이기도 하다. 살림이 자신의 가족사를 쓰는 것과 동시에 인도의 역사적 격변이 함께 분리될 수 없이 서술되고 있는 것은 위의 제임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사례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⁴⁾

4) 브레넌(Timothy Brennan)도 이 작품을 국가 서사로 본다. 그는 작품이 등장인물

그런데 한편으로 파드마라는 인물은 이와 같은 국가 서사에 다소 회의론을 갖게 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제임슨의 국가적 알레고리라는 것은 국가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그 집단이 겪는 공동의 경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한 개념인데 파드마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국가라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인 듯 보이지만 실제 그 공동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임을 고려한다면 파드마는 바로 그 현실적 어려움, 국가라는 개념이 가진 양가성(ambivalence)을 보여주면서 단일한 공동체로서의 국가 내부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질적인 측면들을 드러낸다. 이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살림이 이미 파드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다. 국가 서사인 『한밤의 아이들』은 주로 살림의 서술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작품은 인도의 독립과 함께 태어나 마법적인 힘에 의해 인도의 역사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살림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서사의 관점에서 볼 때 청자인 파드마의 존재는 서사를 창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는다. 얼핏 보기에 작품 전체의 서사를 관장하는 살림에 비해 파드마의 역할이 미미해보이기 때문에 파드마가 인도의 역사를 겪어온 살림의 과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는 등장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서사의 관점에서 파드마보다는 살림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서술자인 살림에 대해서 분석한 많은 논의들은 설득력을 가지지만 다얄(Samir Dayal), 버크홀츠(Laura Buchholz), 호즈(Clement Hawes)과

의 감정적인 논리를 따라서 작품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인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 작품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이 작품이 국가 서사의 알레고리로 읽힌다고 주장한다. (Characterization in any conventional sense barely exists-only a collection of brilliantly sketched cartoons woven together by an intellectual argument. Narrative never follows the emotional logic of the characters' lives, but the brittle, externally determined contours of "current event."; Brennan 84-85 Kortenaar 31에서 재인용)

같은 평자들은 특히 살림만이 가지고 있는 서사의 탈식민적 특성을 중심으로 국가 서사를 분석한다. 다얄은 탈식민적 상황과 관련하여 살림이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헤게모니적인 해석을 거부하는 것이 서사가 가진 힘이라고 분석하였고 버크홀츠는 작품의 부자연스러운 서사를 탈식민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글에서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긴밀하게 연결하는데 사용된 마법적 사실주의를 살림을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호즈는 버크홀츠와 비슷한 맥락에서 살림의 코가 가진 초능력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견해를 드러낸다. 이들의 관점에서 살림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이 작품이 가진 탈식민적 저항의 서사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마술적인(magical) 요소에 대한 분석은 살림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림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물론 『한밤의 아이들』은 몸이 부서져 죽음을 기다리는 살림의 가족사이면서 살림의 인도에 대한 서사이다. 기본적으로 살림이라는 개인이 겪는 삶이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술자는 살림이라고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살림의 개인적인 서사는 인도의 독립의 전후의 역사를 훑는 것과 같다. 인도가 독립한 순간에 태어난 살림은 마법적인 힘에 의해 인도의 역사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이런 그의 인생을 정리한 이 작품은 인도의 근현대사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작품이 가지는 독특한 점은 청자인 파드마가 있다는 사실이다.

파드마는 인도의 역사를 겪어온 살림의 과거에 특별히 영향을 끼치는 등장인물은 아니다. 살림의 과거에 파드마가 등장하는 것은 단 한 부분으로 살림이 모든 사건을 겪고 나서 보모인 메리의 피클공장에 거주하면서 부터이다. 파드마가 살림의 이야기 내부, 즉 살림이 쓰고자하는 자신의 과거에 등장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살림이 자신의 과거를 기술하는 것이 작품의 목적이라면 거기에 아주 작은 부분 등장하는 파드마의 역할은 단순히 살림의 서사를 들어주는 청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파드마는 살림이 쓰는 과거에 대해 들으면서 끊임없이 서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작

품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파드마는 단순히 청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국가 서사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등장인물로 재분석될 필요가 있다. 서사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파드마는 살림이 따르고 있는 서구의 글쓰기 방식을 미묘하게 변형시키면서 탈식민 서사 형성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살림의 서술에 개입하면서 서술의 진행을 도우면서 그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그녀가 보여주는 이러한 양가성은 국가적 알레고리 형성에 기여를 하면서도 동시에 인도 내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남성 중심적 헤게모니의 해체를 뒷받침한다. 살림이 보여주는 탈식민 인도의 국가 서사는 서구의 기존 담론에 저항하며 파드마의 개입을 통해 여성을 비롯한 하위주체들을 서사에 포함하게 된다.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탈식민 상황들은 살림만을 통해서만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탈식민 상황이란 영국의 교육을 받은 인도인들이 엘리트가 되어서 다시 인도를 지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부터 식민지배 동안 소외와 독립 후에도 여전히 소외 받고 있는 인도의 하위계층이 존재하는 복잡한 상태를 의미한다. 전형적인 인도의 하위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파드마를 분석하는 것은 인도가 직면한 탈식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하위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파르바티와 마술사 집단의 사람들은 영국의 지배가 걷힌 후에도 여전히 인도에서 하위 계층에 속해 판자촌에서 살아가며 급기야 인도의 엘리트들인 정치 관료들에 의해서 게토로 밀려나거나 긴급조치에 의해 거세를 당하게 된다. 인도인을 지배했던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다시 인도 내부에 남은 영국식 사고방식, 즉, 열등하거나 주변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배척은 여전히 인도에 남아 있는 문제이다. 여성 또한 서양식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이 될 것을 요구 받지만 한편으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는다. 살림의 어머니 아미나(Amina Sinai)의 경우 남편의 재산 동결로 자신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발 벗고

나서지만 정작 남편의 허락 하에 생활비를 타서 쓰고 자신의 남편에게만 충실하기를 강요받는다. 서양의 여성상과 전통적 인도의 여성상이 이중으로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서사로서 작품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살림의 서사가 국가와 역사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재현하는 방식으로서의 탈식민의 역사쓰기라고 볼 때(Watson 216),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1983)는 작품의 서사 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앤더슨은 18세기의 소설 구조를 예로 들면서 민족이 어떻게 시간을 공유하는가를 설명한다. 소설에서 시간의 흐름이 횡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그 시간을 순서대로 세 개의 간격으로 나눈다. 각각의 시간 안에서 4명의 A, B, C, D 네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이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중, A와 D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지만 이들은 어느 한 국가, 혹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동질적인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간과 사건이 소설 속에서 일어날 때에 A와 D는 작품 속에서 마주치지 않은 인물들이므로 A와 D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독자만이 알 수 있다.⁵⁾ 앤더슨은 네 명의 등장인물들이 달력에 표시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독자는 작가에 의해 어떤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Anderson 25-26). 이것은 한 국가의 국민이 개별적으로 서로가 모두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느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점을 공유하며 서로의 동시적인 이름의 활동에 완전한 신뢰감을 가지는 과정

5) 앤더슨이 시간과 국민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예로 든 소설은 발작(Balzac)의 것이다. 앤더슨의 글 25쪽을 참고하면 이 플롯에 대한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표를 그려 설명하고 있다.

을 잘 보여준다(Anderson 26).

앤더슨이 살림이 상상하는 민족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면 바바(Homi K. Bhabha)의 주장은 파드마의 존재가 국가 서사인 『한밤의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바는 이러한 앤더슨의 주장에 덧붙여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가 서사가 “마치 리얼리즘 소설의 플롯처럼 작동한다”(…works like the plot of a realist novel; *LC* 226)⁶⁾고 지적하면서 국가 서사로 읽히는 『한밤의 아이들』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살림의 시도는 바바가 「디세미-네이션」(“Dissemi-nation”)에서 민족주의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논의하는 “고대의 시간”(the archaic; *LC* 213)과 흡사하다. 다시 말해, 바바는 현대에 상상된 민족개념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자들이 과거의 신화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하는데 이때 바바가 말하는 민족주의자의 모습은 살림의 모습과 비슷하다. 파드마가 문제 삼는 것은 살림의 인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살림이 보이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살림은 상상되고 고정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인도의 과거 시간인 조부와 부모의 시간에 대해 서술한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탄생이 가능해지기는 하지만 역사서술에 집착하여 자신의 탄생이전의 시기까지 다룸으로써 작품의 2권에 다다라서야 살림의 탄생장면이 나온다. 파드마는 그의 과거사를 중심으로 한 살림만의 인도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인도의 탄생에 더 주목하기를 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드마의 존재를 바바가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 하나인 양가성(ambivalence)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바바가 말하는 양가성⁷⁾은 하나의 경계로 매듭지어지는 안정성을 거부하는 개념이다. 이

6) 『문화의 위치』 (*The Location of Culture*, 2004) 이하 인용은 *LC* 표기.

7) 『문화의 위치』는 탈식민주의 논의에서 핵심 개념들을 소개한다. 바바는 혼종성(hybridity), 양가성(ambivalence), 흉내 내기(mimicry)가 어떻게 식민주의와 제국에 대해 저항의 방법이 되며 그들을 공격하는지 설명한다. 바바가 문화적인 혼종성(hybridity)을 논할 때, 그것은 쉽게 말해 어떤 문화에서든지 순수한 문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가 서로 구별되어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즉, 혼종성은 서

것은 기표가 자신이 지칭하는 대상을 완전히 포함하지 못한다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바바에 따르면 어떠한 대상을 지칭하는 순간의 기표는 그 대상을 지칭하기도 하고 완전히 지칭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칭의 행위로 대상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표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게 된다(LC 158-59).⁸⁾ 다시 말해, 어떠한 대상에게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고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기표가 대상을 완전히 지칭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이러한 지칭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양가성은 대상을 규정할 때 바탕이 되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개념을 거부함을 나타낸다. 또한 양가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표에 의해 완전히 포섭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가성은 규정적인 개념이 가진 경계를 허물고 이것이 완전히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남겨진 부분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드마가 작품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고자 할 때 중요한 개념이 된다.

「디세미-네이션」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바바는 근대의 민족국가의 출현에 대해 분산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근대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주의나 민족에 대한 담론이 국가의 개념에 대해 확실성과 동질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역사주의(historicism)의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때 바바는 민족과 국가의 문제를

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처음부터 어떠한 계기로 두 가지 문화적 특성이 혼합되어 다른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 바바가 말하는 혼종성이란 여러 문화적 영역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영역의 접경지대가 애초부터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경지대 가지고 있는 혼종적인 문화적 특징을 혼종성이라고 부른다(LC 6).

- 8) 이를 바탕으로 소개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흉내 내기(mimicry)이다. 흉내 내기는 식민지의 피지배자들이 적극적으로 지배자의 문화에 저항하는 주체임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피지배자들이 지배자의 문화를 흉내 내기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지배자의 문화에 예측되고 동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과장된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지배자의 문화를 조롱하고 위협한다. 이는 피지배자가 지배자 자신과 닮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닮는 것에 위협을 느낀다는 점에서 식민통치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자 스스로를 위협하고 있으며 흉내 내기 행위를 피지배자가 저항의 행위로 수행하고 있음 시사한다(LC 122-26).

분석함에 있어서 시간성(temporality)이라는 개념을 들여오는데, 이 시간성이라는 것은 “교육적”(pedagogical)이며 “수행적”(performative)으로 구성된 이중의 시간이다(LC 209). 교육적인 시간이란 우리가 역사시간에 배우는 시간에 관련된 것으로 주로 과거에 관련된 고정적인 시간성이다. 반면 수행적인 시간은 후에는 역사가 되겠지만 현재에는 유동적인 시간성을 의미한다.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교육적인 시간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수행적인 시간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책 밖의 현실은 책속의 역사와 다를 수 있고 항상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와 수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바는 역사가들이 근대적 총체성(totality)에 사로 잡혀 이중적인 시간(double time)에 대해 결코 묻지 않으며 양가성을 드러내는 서사로서의 국가의 민족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이접적인 시간들”(disjunctive temporalities)에 대해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LC 204). 바바가 지적하는 이접적인 시간들이란 역사교과서에 쓰여 있는 내용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경험과 사건들을 이야기 한다. 역사가들이 이접적인 시간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의 문제는 쪼개져 있는 민족 내부를 하나로 접합시켜 “하나로서의 다수”(many as one; LC 204)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바바가 보기에 민족 내부의 공간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차이(difference)에서 오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긴장관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매끈하게 하나로 묶는 국가의 총체화이다. 바바는 민족이 외부의 민족과의 경계로 이루어진 단일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부에서 “소수자 담론”(the discourses of minorities; LC 212), “경쟁하는 국민들 간의 이질적인 역사”(the heterogeneous histories of contending peoples; LC 212),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권력 간 충돌과 각 위치들 간의 긴장”(antagonistic authorities and tense locations of cultural difference; LC 212)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가 위험한 이유는 외부와의 경계를 쌓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내부의

조각들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묵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바는 이런 “내적 의식의 한계성은 소수자와 망명자, 주변인과 부상하는 것들에 대하여, 혹은 그런 사람들로써 말할 수 있는 입지를 제공한다”(…*internal* liminality providing a place from which to speak both of, and as the minority, the exilic, the marginal and the emergent; LC 214 원문 강조)고 본다. 즉, 이는 여태까지 쌓아온 국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수자와 망명자, 주변인들은 교육적인 시간성의 밖에 놓여 포섭되지 않는 않았지만 의식의 한계성을 인지함으로써 설명되지 않았으나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만약 살림의 서사를 인도의 역사라고 본다면 살림의 서사는 교육적인 시간성을 나타내고 제도화된 공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파드마의 개인적인 개입은 역사책으로서 국가 서사의 형태를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 파드마의 개입으로 인해 생겨난 서사의 틈으로 탈식민 국가의 정체성 문제, 여성의 문제, 계급의 문제 등 살림의 자신의 죽음 전에 어떻게든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살림의 서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조명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파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인식되지 못했던 것들은 기존의 체계를 강화시키지 않고 차이를 나타내면서 작품 내부에 머물게 된다. 파드마는 살림이 만들어내는 국가 서사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파드마가 이 작품에서 맡는 중요한 역할은 민족이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들의 집합임을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인 계급적이나 젠더 문제에 있어서 살림보다 하위 계층인 파드마가 음성언어(spoken language)를 통해 살림의 서사에 개입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림의 서사는 문자언어(written language)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문자를 배우지 않으면 살림의 서술은 이해할 수

었다. 살림이 비교적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영국식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다는 것으로부터 문자언어의 습득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인도 내에서도 엘리트 계층이나 부유한 계층에서 영어를 문자언어로 배우고 읽고 쓸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반면 파드마에 대해서는 그녀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었다는 언급도 없으며 읽고 쓸 줄은 모르지만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나온다. 파드마가 힌두어 뿐만 아니라 영어를 음성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상위에 속하지 않고 영어를 말하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인도인이 많았을 것이라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살림은 자신의 서사를 문자언어인 상태로 남겨둘 수도 있다. 음성언어에 비해 의미의 변화가 적으면서 오래 보존될 가능성이 높은 문자언어는 오히려 인도의 역사를 쓴다는 점에서 살림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더 부합한다. 하지만 살림의 곁에 항상 그의 글을 듣고 싶어 하는 파드마가 존재함으로써 그의 서사는 음성언어로 변하게 된다. 이는 살림이 만들어가는 인도의 역사가 문자 언어를 습득한 인도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음성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하위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자인 파드마가 요구하는 음성언어는 구전되면서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언어에 비해 수정의 가능성이 높다. 음성언어인 말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요구하고 의심하는 파드마의 개입을 통해 작품은 위에서 언급한 단일한 국가/민족 개념을 재고하게끔 한다. 문자언어처럼 매끈하고 단일하고 변하지 않는 역사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파드마의 개입은 탈식민 국가 서사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그러나 그간 파드마에 대해 초점을 맞춰온 비평들은 대체적으로 파드마가 여성이라는 점에 집중하였다. 여성인 파드마가 작품에서 여성혐오주의자(misogynist)인 살림에 의해 다루어지는 점을 지적한 버마(Charu Verma)는 살림의 시선을 통해 나타나는 파드마의 신체에 대한 묘사가

팔에 난 털이나 근육의 묘사에 집중되거나 살림이 파드마가 하는 가사일이나 공장에서 하는 일을 글 쓰는 것 보다 중요하지 않게 묘사하는 점이 이 작품의 한계라고 비판한다. 또한 파드마를 비롯한 여성 등장인물들을 계속해서 타자(other)로 등장시키는 살림의 서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작품이 여성을 잘못된 방식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본다(Verma 155-57).

여성인물과 관련된 위크게넌트(Nicole Weickgenannt)와 코테나르의 논의는 살림의 서사와 작품이 가진 여성 혐오에 대한 오해나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반박한다는 점에서 인정할 부분이 있다. 이 논의들은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성의 괴물성(monstrosity)⁹⁾이 여성혐오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인도역사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가정성(domesticity)을 수호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본다. 여성의 괴물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맥락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논의는 의미가 있으나 그 논의를 파드마에게 확장하여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파드마는 나심이나 마녀 파르바티와는 다르게 괴물성 내지는 마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파드마에게는 파르바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 창조라는 마술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여성으로서 파드마를 이해할 때, 파르바티처럼 살림의 서사에 커다란 사건을 만들어 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택할 수 없다. 과거의 인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커다란 사건을 일으키는 대신, 파드마는 오히려 살림의 서사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위크게넌트나 코테나르가 말하는 괴물성(monstrosity)은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괴물의 이미지이다. 예를 들어 살림의 할머니인 나심 아지즈의 얼굴에 나는 사마귀나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무성해지는 털이 그것이다. 또한 코테나르는 남성 등장인물은 항상 죽음을 맞이하지만 여성 등장인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서 괴물성을 발견한다. 그는 여성 등장인물들에게 성적인 접근을 한 남성 등장인물들은 항상 복수를 당하듯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기에 여성 등장인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여성의 괴물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한다.

파드마는 여성인 동시에 피클공장의 노동자이기도 하다. 위의 분석들이 파드마를 여성으로서만 분석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면, 카타왈(Ubaraj Katawal)과 알바레스(Enrique Galvn lvarez)와 같은 비평가는 계급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의식한 의미 있는 분석을 내어 놓는다. 서발턴(subaltern)¹⁰⁾이라는 관점에서 파드마를 분석하는 이들은 파드마를 비롯한 작품 내의 많은 서발턴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발턴들이 엘리트 담론 사이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서사가 “보충적”(supplementary; Katawal 87) 목소리를 낸다는 카타왈은 서발턴이 근대적 지식 생산 구조 바깥에서 엘리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 없이는 다른 쪽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서발턴들이 사회 구조의 영역 내에 살면서 엘리트 계급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고 본다. 카타왈에게 아쉬운 점은 서발턴의 목소리가 국가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서발턴의 역사를 통해서 작품에 접근하는 알바레스 역시 카타왈처럼 작품이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쓴 작품인 점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서발턴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특히 작품의 중요한 형식인 마술적 리얼리즘(Magic realism)요소를 분석하면서 이 작품이 마술적 리얼리즘적 요소로 인해 서발턴의 역사가 이 작품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lvarez 116).

이제 논의의 초점을 파드마의 개입(intervention) 문제에 맞추어보자. 파드마의 개입의 특성은 “무엇이 다음에 일어나나 주

10) 서발턴(subaltern)의 개념은 단순히 제3세계의 여성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 용어는 제3세계의 여성의 위치가 제국에 대한 억압과 그들이 속한 국가 내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남성의 억압이 있음을 밝히고 이에 따라 이중으로 억압받는 제3세계 여성들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용어는 제3세계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사회적 계급,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서구의 교육을 받고 독립 후 제3세계를 통치하는 엘리트 집단부터 인도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최하위층인 불가촉천민으로 나뉜 이 계급적 구도 내에서 제국에 대한 억압과 동시에 계급적인 억압을 이중으로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기도 한다(Ashcroft 215-19).

의”(What-happened-nextism; MC 38)로 나타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파드마는 살림이 선적인(linear) 서사를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적인 서사는 단지 시간의 순서대로 작품을 밀어 나가는 서사방식일 뿐만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나 등의 인과 관계를 차근차근 밝혀나가는 서사 방식이다. 파드마가 이와 같은 서사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살림은 계속해서 에피소드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나가도록 요구 받는다.

배티(Nancy Baty)는 살림과 파드마의 숨김과 폭로의 과정이 독자로서 하여금 탐정소설을 읽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평가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그녀는 서사에 있어서 파드마의 개입에 대해 설명한다. 배티가 보는 관점에서 파드마의 질문들을 살펴보면 살림이 구체적으로 정보를 밝히지 않은 사람의 정체에 대해 질문하고,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살림은 이에 대한 질문을 보류하며 서스펜스¹¹⁾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살림이 숨기고 있는 폭로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독자뿐만 아니라 파드마도 살림의 서사에서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보고자 하는 파드마의 역할은 이보다 훨씬 중요하다. 배티의 분석대로 이러한 파드마의 개입이 작품에 서스펜스를 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파드마의 개입은 국가 서사 형성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더 의의가 있다.

파드마의 “다음에-무엇이-일어나나주의”에 대한 그간의 비평은 파드마의 역할을 서술의 보조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평가들은 이 작품을 제국의 역사 서술 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축소시킨다. 예를 들어, 자니(Pranav Jani)는 “한밤의 아이들이 “평범한 인도인”과 선적인 방식의 스토리텔링과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고 있

11)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듯, 이 작품은 『천일야화』(*Arabian Nights*)의 모티브를 빌려왔다. 천일야화에서 셰헤라자데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천일하고 하루 동안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이야기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은 것처럼, 살림도 서사에 대한 독자(최소한 작품 내에서 청자인 파드마를 포함한)의 긴장감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긴장감을 배티는 ‘서스펜스’(suspense)라고 부른다(Baty 50).

다”(Midnight’s Children links “the ordinary Indian” to linear models of causation and storytelling; Jani 159 원문강조)고 본다. 선적인 서사의 방식과 이야기하기가 파드마의 특징과 연관된다고 보는 자니는 파드마의 질문이 살림으로 하여금 서술자의 역할을 상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자니는 이러한 해석이 지나친 것임을 지적하면서 파드마의 궁극적인 탁월성(transcendence)은 서사의 리얼리즘적인 요소와 서사의 선형성(linearity)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누가, 무엇이, 왜’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자니의 의견에 따르면 파드마는 서사에 있어서 두 번째 위치에서 서술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사에 끼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파드마가 살림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살림은 파드마의 요구와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대답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서술주체가 아닌 파드마가 자신의 서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니는 이러한 점 때문에 파드마가 두 번째 위치에 놓인 서술 주체이지만 파드마가 살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만듦으로써 서사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파드마가 가진 힘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평가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자니는 파드마의 이러한 특징이 소설이 서발턴의 범주에 속하는 등장인물들을 주변화 하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국에 파드마가 살림의 서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 측면의 우수함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 자니는 살림의 서술에 만연해있는 선형성과 단순함에 대한 욕구와는 반대의 역사를 쓰는 것, 다시 말하면 포스트모더니스트 역사학¹²⁾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살림은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성공한다. 서사가 진행될수록 살림과 파

12) 자니는 포스트모더니스트 역사학이 기존의 선적인 흐름을 가지는 역사학의 기술 방식을 해체함으로써 시간의 순서나 역사적 사건 이외의 것을 다루면서 역사 기술의 전통적인 방법을 해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Jani 141-43).

드마의 다툼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은 파드마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가운데 파드마가 국가 서사에 있어서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살림은 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청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기도 한 셈인데 따라서 그의 이야기는 청자인 파드마가 없이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¹³⁾ 살림의 탄생과 더불어 “셰헤라자데보다 빨리”(faster than Scheherazade; MC 4)라는 서술이 환기시키는 『천일야화』(*Arabian Nights*)의 이미지가 살림이 이야기를 쓰는 사람임과 동시에 말하는 사람임을 연상시킨다는 점은 이미 많은 평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코테나르가 지적한 바 있듯, 루시디는 살림을 “모세, 가네쉬 여신, 그리고 셰헤라자데”와 연결시키면서 살림이 “구전적 스토리텔링”(oral story-telling; Kortenaar 21)을 구사하도록 한다.

파드마의 개입이 가지는 특징은 살림의 서사가 가진 신화성을 해체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살림의 시간성은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구축되며 자신의 글을 통해 파드마는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는 청자로서 살림이 이끌어가는 인도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이 빠트리코 있는 것들에 대해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거대서사를 이끌어가는 살림에게 있어서 파드마는 그가 보지 못하고 누락하고 있는 것들을 불러들이면서 그의 서사가 더욱 제대로 된 국가의

13) 영국의 문학적 전통과 인도의 문학적 전통에 관한 논의는 작품의 서술구조와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주제였다. 모레이(Peter Morey)는 “Salman Rushdie and the English tradition”라는 글에서 루시디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포스터(E. M. Forster), 디킨스(Charles Dickens) 등 수많은 영국 문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고, 거나(Abdularazak Gurnah)는 서술자인 살림이 로렌스 스텐(Laurence Sterne)의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의 인생과 생각 이야기』(*The Life and opinions of Tristram Shandy, Gentleman*)의 서술 방식을 차용하고 있음을 밝힌다(Gurnah, 99). 작품의 형식과 서술구조의 특징을 논하는 비평들에서는 화자인 살림과 청자인 파드마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 둘의 관계가 인도의 문학 전통인 구전 문학의 특성을 가진다고 보며 이것이 영국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글로 쓰는 문학과 함께 작품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학적 전통의 혼종성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한다(Morey 29-35).

서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녀가 살림의 서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살림의 탄생과 삶은 인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살림의 가족사와 그의 개인사를 통해 작품은 탈식민 인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탈식민의 문제를 겪게 만든 식민주의(colonialism)의 문제점을 드러낸다.¹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역사,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인도의 역사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대 서사는 살림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지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파드마가 살림의 서사에 질문을 던지며 개입함으로써 잊힐 수도 있는 주변부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환기된다.

파드마는 살림이 서술하는 역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끼어들면서 인도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살림의 서사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허망한 죽음”(absurdity; *MC* 4)에 대한 두려움이다. 살림은 인도의 역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는 부조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허망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살림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인디아”(my India; *MC* 190)를 구성하고 그로부터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허망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살림은 거의 이루기 불가능한 목표인 인도의 역사를 한 번에 자신의 안에 담으려고 한다. 자신의 몸과 글에 거대한 인도의 역사를 담으려는 살림에 맞서 파드마는 인도의 역사라는 것이 살림의 이야기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개입을 통해

14) 루시디는 인도의 역사와 민족주의(nationalism)와 얽어 살림이라는 남성 화자를 통해 잘 나타내고 있다. 살림의 정체성 문제는 이산의 문제에서 비롯되며 혼종성 문제는 자신이 인도인이면서 동시에 어린 시절 메솔드 저택(Methwald Estate)에서의 삶과 할아버지 등을 통해 그에게 전달된 영국적인 특성의 충돌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과 역사를 결부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인도의 역사와 관련해 찾아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살림이 찾은 정체성은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신비스러운 분위기와 사실주의적 분위기, 개인과 국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요소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나누어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는 흑백논리, 혹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드러낸다. 또한 살림이 서술하는 중심부의 서사 이외에도 주변부의 질문과 의심을 포함하는 것이 새로운 인도의 정체성임이 파드마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파드마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 살림의 인생이 인도의 근현대사의 알레고리이듯, 파드마 또한 인도 역사의 국가와 민족성의 알레고리로서 살림의 서사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민족 국가 형성 서사에 영향을 끼친다.

파드마의 개입이 서사를 추동하고 지연시키면서 탈식민 인도에 새로운 서사의 형태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2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파드마의 개입과 서사의 추동이 여담을 잘라내고 단선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서사의 흐름을 살림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청자인 파드마가 개입하면서 독단적인 서술의 흐름을 막고자함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입과 청자로서의 역할이 작품에 탈식민 소설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파드마의 개입이 거대한 역사서사에서 소외되거나 빠질 수 있는 주변부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파드마는 살림의 서사에 질문이나 의심을 통해 개입함으로써 국가 형성 서사라는 거대서사가 놓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환기시키며 이를 통해 국가가 단일한 국가의 개념에서 탈피하도록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많은 계층과 국가의 형성을 위해 희생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살림의 관점에 의해 쓰인 서사를 통해 무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드마의 개입은 국가 서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써 독립 후 인도의 내부의 탈식민적 상황을 포착하고 있음을 살펴보겠다.

마지막 4장에서는 파드마의 개입을 통해 살림이 궁극적으로 탈식민 인도에 제시하고자 했던 서사의 완성에 성공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작품의 결말에 나타나는 살림의 몸의 부서짐을 평가하고자 한다. 산산 조각난 살림의 몸이 국가 서사 구성에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짐을 통해 인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탈식민 인도의 국가 서사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 고자 한다.

2. 여성 청자로서 파드마의 개입

살림과 파드마의 관계 및 그들의 대화를 분석해보면 작품이 탈식민 국가가 이루어진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영국의 지배를 받은 후의 인도는 지배 받기 이전의 인도와는 다른 국가가 된다. 식민 지배의 기간 동안 인도에 침투한 영국의 문화와 언어, 생활 방식과 교육은 인도가 탈식민 국가로서 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영국과 인도의 문화가 혼종적으로 섞이게 되면서 독립했지만 영국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된 것이다. 부정할 수 없이 인도에 남아 있는 영국의 흔적 때문에 인도는 탈식민 이후 자신들의 혼종적인 부분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관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작품에서 영국인과의 혼혈로 태어난 살림이 서술자라는 것은 탈식민 인도에 남은 영국적 정체성과 자신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살림은 하나의 완결되고 총체화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파드마는 그런 살림의 곁에 청자로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탈식민 국가의 정체성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 서사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파드마의 개입은 표면적으로 서사의 흐름을 끊는 행위이다. 살림은 인도의 독립전후의 역사를 아담 아지즈가 인도에 돌아오면서부터 자신의 서른 번째 생일까지 일어나는 일을 연대기처럼 서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서사의 흐름에 파드마는 질문이나 평가를 통해 계속해서 개입한다. 살림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서사를 완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자인 파드마를 방해물처럼 여긴다.

파드마가 나를 방해한다. 저녁식사를 가져오더니 주지는 않고 나를 욕박질렀다. “이렇게 온종일 눈이 빠지게 끼적거리기만 할 거면 적

어도 나한테 읽어주기라도 해야죠.” 나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라도 주절주절 읊어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쩌면 파드마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한 순간도 비판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I have been interrupted by Padma, who brought me my dinner and then withheld it, blackmailing me: “So if you're going to spend all your time wrecking your eyes with that scribbling, at least you must read it to me.” I have been singing for my supper-but perhaps our Padma will be useful, because it's impossible to stop her being a critic. (MC 29)

위의 장면을 비롯한 몇몇 장면에서 파드마는 글을 쓰고 있는 살림을 방해한다. 파드마는 저녁식사를 하라고 협박한다. 파드마에게 살림의 글쓰기는 “끼적거림”(scribbling)에 불과하고 저녁식사를 포기할 정도의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살림은 그녀가 자신의 글쓰기 작업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에 방해라고 여기고 파드마가 최소한 자신에게 이야기를 읽어달라는 요구도 방해라고 생각한다. 그는 소리 내어서 읽어 달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방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파드마에게 “자신의 저녁”(my dinner)식사를 위해서 “글을 읊어댔다는”(have been singing) 것에서 살림이 파드마의 요구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식사만큼이나 파드마에게 글을 읽어주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살림이 자신의 글에 비판이 아니라 비평을 통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드마의 유용함은 그녀가 “비평가가 되는 것을 멈출 수 없다”(impossible to stop her being a critic)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살림이 파드마가 비평가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파드마

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기”(perhaps our Padma will be useful) 때문에, 파드마의 요구는 받아들여진다. 이를 통해 서사의 비평가로서 파드마의 개입이 가능해진다.

파드마의 요구는 인도의 역사가 새롭게 구축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탈식민 인도의 국민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거부로 이해된다. 살림은 파드마가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를 남이 아는 것을 싫어한다고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는 마치 파드마가 고집이 세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진 드센 여성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자신도 남들이 아는 이야기를 알고자하는 파드마의 고집은 살림이 하는 이야기가 인도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살림이 형성하는 문자화된 역사에서 읽고 쓸 줄 모르는 파드마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알게 될 역사를 자신이 모르는 것을 파드마는 견딜 수 없다. 파드마가 부리는 고집은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서사를 알지 못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파드마의 요구는 그녀가 드센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살림과 같이 독립 후 탈식민 인도의 변화를 겪고 있는 같은 인도 사람으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게다가 파드마는 읽고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살림이 글을 읽어주지 않으면 서사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서사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파드마는 살림의 서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비평가가 되고 살림의 서사에 개입하려면 우선 그 내용을 알아야한다. 그러므로 파드의 고집은 청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살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통해 자신이 인도의 역사에서 제외되지 않고 새롭게 형성되는 인도의 역사에 포함되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¹⁶⁾

15) 웨버(Eugen Weber)에 따르면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몇몇 방식에 의해 표현하고 있다”(illiterate are not in fact inarticulate; they can and do express themselves in several ways; Chakrabarty, “Small History” 478에서 재인용). 작품에서 파드마의 개입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파드마가 자신의 의견을 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파드마의 요구의 중요성은 글로써 역사를 정리하려는 행위 자체를 구전적인 성격과 혼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데에 있다. 서양의 전통적인 역사책과 달리 작품은 인도의 민담과 전설과 같은 구전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파드마의 요구는 살림의 서사가 영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완전히 영국적인 것은 아니며 동시에 완전히 인도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살림의 서사는 서구의 글쓰기 방식인 소설이나 역사책과 같은 형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청자인 파드마가 말을 통해 끼어들고 청자로서 존재함으로써 살림의 이야기는 영국적이면서 인도의 구전적 특징도 겸하여 가지게 된다. 파드마의 존재는 살림의 서사의 형태적 측면에 있어서 영국과 인도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작품은 인도의 도처에 존재하는 혼종성(hybridity)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여기에서 말하는 혼종성이란 양가성의 한 갈래로 두 문화가 단순히 혼합(mixing)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이 나타내는 혼종성은 두 문화가 섞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메솔드 저택(Methwald Estate)에서 벌어지는 칵테일을 마시는 시간이나 저택이 드러내고 있는 건축양식은 다분히 영국적이거나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살림의 가족은 인도 사람들로써, 영국식 메솔드 저택에서 인도인 가족이 살고 있는 모습을 서술하는 것은 인도에 잔재처럼 남아 있는 식민적 요소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인도인이지만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려 들었던 대영제국의 교육,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인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름 붙일 수 없는 탈식민의 혼종적인 면이 이러한 예를

수 있다.

- 16) 프랭크는 파드마의 존재가 루시디가 소설 내에 구전적인 요소를 가지게 해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and through Padam Rushdie succeeds in interiorizing a dialogical relationship in the novel's enunciatory structure, in that the very communicative situation is dramatized within the novel; Frank 195)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전적인 요소와 문자화된 서술적인 요소가 서로 섞임으로써 전통적인 역사 서술의 전통은 해체된다.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파드마의 개입에 의해 혼종성은 서사의 형식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혼종적 특징은 탈식민 이후 인도의 새로운 정체성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파드마는 서사의 형태뿐만 아니라 역사의 서술자인 살림의 혈통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서사의 주체가 갖고 있는 혼종성을 강조한다.

“영국인?” 파드마가 경악하여 큰 소리로 외친다. “무슨 소리에요? 당신이 앵글로-인디안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살림 시나이예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코찔찔이, 얼룩상판, 코흘쩍이, 중대가리, 달덩어리. 내 이름이 아니라, 무슨 소리에요?”

“여태까지,” 파드마가 분개해서 이렇게 한탄한다. “당신은 속였어요. 아미나 시나이를 ‘우리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이모. 자기 친부모에 대한 진실을 감추다니 무슨 사람이 그래요?...”

“An Anglo?,” Padma exclaims in horror. “What are you telling me? You are an Anglo-Indian? Your name is not your own?”

“I am Saleem Sinai,” I told her, “Snotnose, Stainface, Sniffer, Baldy, Piece-of-the-Moon. Whatever do you mean-not my own?”

“All the time,” Padma wails angrily, “you tricked me. Your mother, you called her; your father, your grandfather, your aunts. What thing are you that you don't even care to tell the truth about who your parents were?...” (MC 131)

살림과 파드마가 직면한 상황은 탈식민 국가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파드마는 살림이 영국인과 인도인의 혼혈임을 되물으면서 분노한다. 파드마가 느끼는 분노는 거의 공포(horror)에 가깝다. 파드마는 살림에게 아미나와 아지즈와 나심 모두 살림의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것을 문제 삼는다.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파드마의 분노는 혼종에 대한 거부감이고 그것을 실제로 맞닥뜨린 당혹감의 표현이다. 탈식민 인도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에 있어 그의 혈통이 순수한 인도인이 아니라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파드마에게 살림은 자신은 여전히 살림 시나이라고 말한다. 비록 영국인 메솔드와 인도인 바니타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라도 자신이 인도인이며 아지즈 가문의 아들임에는 변함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비록 혼혈이라도 그가 인도인 살림 시나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살림은 신생국 인도 전역에서 자신과 같이 “부분적으로만 자신의 부모들 자식”(only partially the offspring of their parents: *MC* 132)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었다고 말한다. 즉, 살림과 같이 영국인과 혼혈인 인도인들이 많아지자 이들을 인도인으로 여겨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살림은 달리질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들은 시대의 아이들이며 역사의 아이들이라고 주장한다(*MC* 132). 또한 가짜 영국제 지구본에 묻어놓은 살림의 출생을 축하하는 네루 총리의 편지와 신문 기사들은 그가 진짜 살림 시나이임을 증명한다. 파드마는 살림을 인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 영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마치 가짜 영국제 지구본처럼 그를 진짜 영국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도인 총리와 신문을 통해 그의 탄생을 알게 된 수많은 인도인들이 그를 인도인이라고 증명해주고 있다. 파드마의 분노는 잦아들면서 그의 이야기를 인도의 역사로 들어주게 된다. 오히려 살림의 혈통을 인정한 후 파드마는 서술의 속도가 너무 늦어져 역사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살림을 재촉하는 태도를 보이며 살림이 가진 인도 역사의 서술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한다.

파드마의 서사의 추동에 대한 요구는 자꾸만 서술의 중간에 끼어들어

그 흐름을 멈춘다는 점에서 일견 서사를 지연시키는 방해와 간섭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살림의 몸이 부서지기 전까지 서사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살림은 파드마의 요구가 오로지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다. 살림은 파드마에게 식사를 제공받기 위해서라도 그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어야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가 파드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는 점은 파드마가 한편으로 서사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 내 팔꿈치 근처에 파드마가 있다. 그녀는 내가 선적인 서사의 세계, 무엇이-다음에-일어났나의 우주로 돌아오도록 괴롭힌다. “이런 속도로는,” 파드마가 불평한다.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200살이 되어 버릴 거예요.”

But here is Padma at my elbow, bullying me back into the world of linear narrative, the universe of what-happened-next: “At this rate,” Padma complains, “you’ll be two hundred years old before you manage to tell about your birth.” (*MC* 37)

파드마는 서사에 개입하면서 서사의 흐름을 끊거나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서사를 추동하고 있다. 파드마가 살림을 선적인 이야기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노력은 살림의 의도와는 상반된다.¹⁷⁾ 살림은 시간이 모자라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모두 담으려고 하기

17) Saleem’s narration repeatedly refuses a linear narrative, anticipating, delaying, at times unable to resist blurting out the significance of an event to a future outcome, at other times appearing to struggle with admissions. (Gurnah 97)

때문에 그가 보여주는 서사의 흐름은 인과관계를 드러내거나 전후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살림은 여기에 대해 파드마가 요구하는 것이 선적인 서사이며 인과관계를 밝히는 서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서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요구라고 불만을 표시한다. 살림은 파드마가 원하는 더 큰 차원의 선적인 서사를 통해서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역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파드마가 살림을 조롱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듯(MC 37), 파드마의 반응은 모든 것을 담으려는 살림의 의도에 대한 비꼼이나 불평이 아니다. 의사도 볼 수 없는 살림의 몸의 균열을 감지하고 있는 파드마는 살림의 파열 전에 서사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다. 모든 것을 다 쓰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서사를 완성할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을 파드마는 느끼고 있다. 살림이 탄생하지 않은 상태는 아직 살림의 이야기가 탈식민의 상황이 전개가 된 독립 이후에도 도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파드마가 이야기를 빨리 진행시키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독자 혹은 청자가 가질 법한 다음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살림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인도의 역사를 완성시키라는 요구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살림도 자신의 몸의 균열이 심각해지는 것을 감지한다. 살림 또한 이 서사를 완성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무시하고 무작정 모든 것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파드마의 요구를 길잡이 삼아 서사를 진행한다.

이런 상태라 나는 파드마의 근육을 길잡이로 활용하는 요령을 익히는 중이다. 이를테면 파드마가 따분함을 느낄 때마다 그녀의 근섬유에서 발생하는 무관심의 파문을 감지하고, 파드마가 내 말을 믿지 못할 때마다 그녀의 뺨에서 일어나는 안면경련을 확인하는 식이다. 그녀의 근육조직이 춤을 추면서 내가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왜냐하면 모든 문학이 그렇듯이 자서전에서도 저자가 독자와

를 설득하여 무엇을 믿게 만들었느냐가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

[I]n this condition, I am learning to use Padma's muscles as my guides. When she's bored, I can detect in her fibers the ripples of uninterest; when she's unconvinced, there is a tic which gets going in her cheek, The dance of her musculature helps to keep me on the rails; because in autobiography, as in all literature, what actually happened is less important than what the author can manage to persuade his audience to believe... (MC 310)

살림은 자신의 유일한 청자인 파드마를 “설득하기 위해”(manage to persuade) 노력한다. 자신의 서사가 “자서전”(autography)이며 이때 “실제 무엇이 일어났느냐는 덜 중요하다”(what actually happened is less important)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은 살림의 서사가 갖는 허구성을 드러내면서, 자서전이기에 때문에 살림이 하는 실수들¹⁸⁾에 좋은 변명이 된다. 그리고 역사이기도 하고 자서전인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드마의 서사에 대한 믿음이다. 살림은 자신의 비평가이자 청자인 파드마가 서사에 대해 믿음을 가지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해야한다. 때문에 살림은 파드마의 근육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파드마의 몸은 살림의 서사에 파드마가 설득되었는지 아닌지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살림은 “파드마의 근육을 안내자”(Padma's muscles as my guides)로 보고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18) 살림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는 간디의 암살 날짜에 대한 착각이다. 간디 암살 사건이 여름에 일어난 것처럼 썼지만 본인이 인정하고 있듯(MC 189-90), 실제 간디 암살이 일어난 날은 1948년 1월 30일로 겨울이다.

이와 더불어 살림이 자신의 몸의 균열과 싸우면서 서사를 진행시킬 때 파드마의 근육은 살림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인 반응을 보인다. 살림의 몸의 “부패는 가속화 되고 있다”(my decay accelerates; *MC* 310). “이런 상황에서”(in this condition) 서사는 “목이 부러질 속도”(breakneck speed; *MC* 310)로 진행된다. 살림은 자신의 몸이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서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서사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실수들”(errors; *MC* 310)과 “과장들”(overstatements; *MC* 310)이 서사 도중에 만들어진다. 간디(Mohandas K. Gandhi)가 죽은 날짜를 착각한 것과 같이 누적되는 실수들 때문에 서사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the rise of unreliability grows; *MC* 310).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파드마의 근육계”(Padma’s musculature *MC* 310)는 살림의 서사가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준다”([Padma’s musculature] helps me[Saleem] to keep me on the rails; *MC* 310). 파드마의 뺨의 안면경련과 근육 섬유들이 보여주는 반응 모두 살림의 서사가 본래의 “궤도”(rails)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 오게 한다. 궤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살림의 서사가 여담(digression)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살림이 묘사하는 세부사항들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여담이 길어지는 순간에 파드마는 그녀의 몸의 반응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인다. 이를 살림이 감지함으로써, 서사는 본래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파드마의 몸은 살림의 서사에서 “안내자”(guide; *MC* 310)가 된다.

파드마의 질문과 몸의 반응에 의해 살림은 서사의 진행을 빠르게 하는 법을 익힌다. 그는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간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 예를 들면, 힌두와 이슬람 사이의 암살 사건이나 파키스탄 분리 사건은 “봄베이 영화식 클로즈 업”(Bombay-talkie style close-up; *MC* 398)¹⁹⁾을 통해 순식간에 처리된다. 많은 정치적인

19) “봄베이 영화 식 클로즈 업”(Bombay-talkie style close-up; *MC* 398): 이는 살

사건들이 “슈퍼임포즈 기법”(superimpose; *MC* 398)²⁰⁾으로 간략하게 요약된다. 몇 년 간의 많은 정치적인 사건들이 마치 영화 기법처럼 여러 화면이 중첩되어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럼에도 파드마는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림에게 더욱 빨리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살림은 “멈출 시간이 없다; 동정이나 혼란에 빠질 시간도 없다”(No time to pause now; no time for sympathy or panic; *MC* 315)고 말하고 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서 서사를 완성하여 “피클병”(pickle-jar; *MC* 14)에 보존하겠다는 살림의 바람이 드러난다. “당신 왜 기다리는 거예요? 시작해요”(Why you’re waiting? Begin; *MC* 399)라는 파드마의 말은 마치 달력의 페이지를 쉬지 않고 넘기듯이 살림에게 서사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주는 것과 같다. 이제 파드마는 단순한 길잡이에 머무르지 않고 살림에게 서사를 허락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 살림은 파드마가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기를 기다린다(*MC* 399).

나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을 해 달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아담 아지즈에게 써버렸다.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하는지에 대해 나는 아마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폭로는 거부되지 않을 것이다.

[G]ive me the go-ahead. Because I’ve spent too long on Aadam Aziz; perhaps I’m afraid of what must be told next; but the revelation will not be denied. (*MC* 319)

림이 보충설명하고 있듯이, 바람에 달력의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면서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MC* 398).

20) 슈퍼임포즈(superimpose; *MC* 398): 두 개 이상의 화면을 중첩시켜 하나의 프레임에 함께 나타나게 하는 기법으로 주로 주인공의 상상이나 추억,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인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여담에 빠지는 살림은 누군가가 자신을 앞으로 끌고 나가주기를 바라고 있다. 작품의 끝부분에 다다르자 살림은 자신에게 누군가 “앞으로 나아가라”(go-ahead; MC 319)는 사인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폭로가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서사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드마의 개입은 작품의 초반에서 보다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몇 번의 재촉과 개입 후 파드마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비평가인 자니는 살림의 서사의 후반부에 파드마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서사가 만족스럽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지만 살림은 여전히 파드마의 선적인 서사의 추동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파드마의 요구가 끼어들 여지가 없이 이미 자신의 여담과 지연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파드마의 개입이 차지할 공간이 없을 뿐이다. 그리고 파드마의 목소리나 개입이 없이도 살림은 계속해서 파드마를 의식한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살림은 파드마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파드마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스스로 서사에 삽입한다. 이미 파드마는 살림에게 내재된 상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이런 장면들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파드마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파드마가 살림의 서사의 만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살림의 서사의 속도를 제어하는 파드마가 살림에게 만족했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파드마를 동력으로 삼아 추진되는 서사는 살림의 선형적인(linear) 서사와 맞물린다. 거나의 분석은 작품이 선적인 흐름을 따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파드마와 살림이 추구하는 서사가 혼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거나는 루시디가 자신의 작품이 선적인 서사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²¹⁾ 거

21) It's not linear. An oral narrative does not go from the beginning to the middle to the end of the story. It goes in great *swoops*, it goes in *spirals* or in loops, it every so often reiterates something that happened earlier to remind you, and then takes you off again, sometimes

나에 따르면 루시디는 자신의 작품이 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구전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서사며 구전적인 요소와 살림의 여담을 통해 서사의 형태가 나선형(spiral)을 나타내게 된다고 밝혔음을 지적한다 (Gurnah 97). 루시디의 작품에 대한 언급에서 알 수 있듯, 서사의 선적인 형태를 흐뜨리는 것에 구전적인 형식이 기여하고 있다. 루시디는 여담이 나선형적인 서사의 구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림과 파드마의 대화는 서사의 흐름에서 벗어난 여담의 일종이다. 구전적인 요소는 여담을 구성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을 가능하게 만드는 파드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선적인 서사가 서구 리얼리즘 문학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면 나선형적인 서사는 이를 해체하는 것이다. 이는 탈식민 문학의 특징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이다.

서사를 재촉하면서 파드마가 살림에게 듣고 싶은 것은 역사책에 나오는 인도의 근현대사가 아니다. 파드마는 살림이 언제 태어나는지, 살림의 부모님이 누구인지와 같은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파드마가 살림에게 하는 많은 질문들은 살림의 개인적인 역사에 관한 것이다. 파드마는 살림의 인생이 인도 역사의 알레고리라는 점을 분명히 믿고 있다. 살림이 인도의 알레고리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서술은 인도의 역사라기보다는 거의 여담이라고 여겨질 만큼 어느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이 된다. 하지만 파드마는 살림의 사적인 서술을 공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파드마가 나디르 칸에 대해서 묻는 장면은 한편으로는 작품의 서스펜스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자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살림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파드마는 살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

summaries itself, it frequently digresses off into something that the storyteller appears just to have thought of, then it comes back to the main thrust of the narrative. Sometimes it steps sideways and tells you about another, related story which is like the story he has been telling you and then it goes back to the main story... So it's a very bizarre and pyrotechnical shape (Gurnah 97에서 재인용).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나디르 칸이 살림의 아버지인지 묻는다(*MC* 52). 하지만 나디르 칸을 통해 환기되는 것은 단지 살림의 가족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디르 칸은 탈식민 이후 인도의 정치적인 혼란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파드마의 질문은 살림의 공언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서사가 공적인 서사가 될 수 있도록 연결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파드마는 살림의 서사가 사적인 서사에서 공적이고 역사적인 서사가 될 수 있도록 개입한다. 파드마는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다.

나는 내 책상에 다시 앉았다; 다시 한 번, 파드마가 내 발치에 앉아서 나를 재촉한다. 나는 다시 한 번, 균형 잡혀진다 - 나의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은 안전하다. 나는 현재와 과거 위에 있는 꼭짓점 근처를 맴돌고 있다. 그리고 유창함이 나의 펜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I am at my table again; once again Padma sits at my feet, urging me on. I am balanced once more - the base of my isosceles triangle is secure. I hover at the apex, above present and past, and feel fluency returning to my pen.
(*MC* 222)

파드마는 여담과 서사의 흐름이 서로 균형 잡혀지도록 만든다. 파드마가 부재상태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살림은 “다시 한 번, 나는 균형 잡혀진다”(I am balanced once more: *MC* 222)고 말한다. 파드마가 부재해 있는 동안 살림의 이야기는 가족사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파드마의 부재 동안 시간의 흐름이 오랫동안 정체되는데, 파드마가 돌아옴으로 인해 살림은 다시 자신의 이야기가 땅을 딛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 안

도감을 느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펜에 유창함이 돌아옴으로써 이야기의 흐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는 파드마의 존재가 살림의 이야기를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파드마가 부재하는 동안 살림은 자신의 코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의 예민한 코의 감지능력이 사라져 살림은 피클공장에서 풍기는 여러 향신료의 냄새들을 분간해 낼 수 없게 된다. 살림에게 있어서 코의 감지능력은 여러 가지 냄새를 분간해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살림은 자신의 코의 감각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분위기 감지한다. 파드마가 다시 살림에게 돌아오면서 살림은 코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로 인해 살림은 자신의 확실성을 되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 쓰고 있는 자신의 삼각형 밑변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살림의 펜이 다시 유창함을 되찾은 이유는 파드마의 귀환으로 확실성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확실성을 바탕으로 한 살림의 서사는 이제 허망한 것이 될 위험에서 벗어나 주춤거릴 필요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살림의 서사는 파드마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균형감을 되찾는다. 살림이 말했듯 현실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로부터 멀어질수록 현실은 구체화되고 현재에 다가올수록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된다(MC 189). 파드마는 살림의 회상과 현재 사이에서 적절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되도록 균형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살림은 파드마가 부재했다 다시 돌아오자 균형감을 느낀다. 파드마가 부재한 동안 살림은 과거에 대해서 기술한다. 살림이 이때 서술하는 과거는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이다. 아미나와 나디르의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눈치 챘을 뿐만 아니라 살림이 자신의 첫 사랑 에비 번스를 만나는 장이기도 하다. 살림은 한밤의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텔레파시 능력을 얻기도 한다.

자신의 이야기가 현실성을 가지고 인도의 역사가 되려면 마법적인 상

황을 현실이라고 믿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살림은 자신의 비현실성을 믿어줄 사람이 파드마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서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살림은 파드마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면서(MC 170) 자신의 서사가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파드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의 부재에 대해 “갑작스러운 분노”(a sudden fist of anger; MC 170)를 느낀다. 물론 삼각형의 밑변이었던 파드마의 부재가 서사의 불가능성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살림에게는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았다”(But there is still work to be done; MC 171). 몸이 부서지기 전에 바로 계속해서 서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의 확실성을 잃은 서사에 대해 살림은 분노를 느끼며 계속해서 파드마가 여기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어떻게 파드마 없이 계속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녀의 무지와 미신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들은 나[살림]의 기적과 같은 전지전능함에 균형추가 되어주었다. 어떻게 그녀의 역설적인 정신의 세속성 없이 글을 쓸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발을 땅위에 붙여있게 해주었다. 나는, 나에게는, 신성한 신과 현재의 연꽃 통 여신과 쌍둥이 신성이 날카로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런데 나는 곧게 뻗은 선의 좁은 일차원성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

How to dispense with Padma? How give up her ignorance and superstition, necessary counterweights to my[Saleem's] miracle-laden omniscience? How to do without her paradoxical earthiness of spirit, which keeps-kept!-my feet on the ground? I have become, it seems to me, the apex of an isosceles triangle, supported equally by twin deities,

the wild god of memory and the lotus-goddess of the parent...but must I now become reconciled to the narrow one-dimensionality of a straight line? (*MC* 172)

살림에게 파드마는 균형추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사가 딛고 설 수 있는 땅과 같은 믿음을 제공한다. 파드마의 땅과 같은 특성은 “세속성”(earthiness)과도 연결된다. 살림이 거대한 역사에 대해서 쓰고 있다면 파드마는 역사의 면면에 존재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인도인의 삶, 세속적인 삶을 대변한다. 이러한 삶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속성을 의미하는 파드마가 살림의 서사에는 꼭 필요한 균형추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속적인 삶은 하나의 논리나 역사로 총체화 되지 않는 역설적인 성격을 가진다. 살림은 파드마가 대변하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역설적인 정신의 세속성”(paradoxical earthiness of spirit; *MC* 172)없이는 글을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는 이것이 선적인 서사가 될까봐 불안해한다. 한 편으로는 서사를 완성하도록 추동하는 파드마의 요구가 살림에게는 너무 편협한 일차원적인 서사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후반에 이르러서 파드마의 개입은 일부 무시되기도 한다. 살림이 파드마를 무시하는 것은 파드마가 여성이고 서발턴이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드마의 요구에 따라 서사를 앞으로 밀고 나가 자신의 죽음이 허망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살림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²²⁾ 파드마는 실제 서사를 추동하고 인도의 정체성 형성의 서사의 또 다른 서술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작품이 결말로 다가갈수록 파드마가 직

22) 서론에서 다른 바와 같이 자니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는다. 파드마가 서사의 두 번째 위치에서 서술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서사에 있어 더 많은 힘을 파드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Jani 179). 그러나 이후의 서사는 다시 살림에 의해 쓰여 나간다. 자니는 이를 통해 서발턴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파드마가 두 번째 위치에서 살림을 돌보이게 하는 역할로 전락하는 것으로 본다(Jani 180).

접 살림을 재촉하는 일은 줄어든다. 오히려 살림은 파드마의 질문이나 감탄이 자신의 서사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질문하고 반응하는 파드마를 무시하고 서사를 진행시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간 파드마의 재촉이 의미 있는 것이었음을 반증한다. 살림 자신에게도 서사의 완성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싶다는 욕망은 파드마의 질문이나 불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녀가 묻는 질문에 답하고 비판에 대해 변명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파드마는 살림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요한 인물이 된다.

이상에서, MC에서 파드마와 그녀의 개입은 인도의 서사의 완성과 알레고리로서 탈식민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파드마의 개입과 재촉이 없었다면 살림의 서사는 여담으로 가득 차 허망한 서사로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파드마의 개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살림이 볼 수 없는 인도 내부의 균열에 대해서 환기시킨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파드마와 서발턴

파드마가 살림의 서사에 만든 틈새를 통해 인도 내부의 여성의 문제와 계급의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국가 서사라는 거대한 틀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인도 내부에 존재하는 주변부가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쉽게 발견되는 것은 파드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파드마는 여성이자 피클공장의 노동자로서 전형적인 서발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파드마의 역할은 서발턴으로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입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실제 파드마의 개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맥락의 논평에서 파드마의 개입은 계층적 전복의 메시지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함에 있어서 여성으로서 파드마가 눈에 띄는 역할을 하는 것을 두고 카타왈(Ubaraj Katawal)은 프라카쉬(Gyan Prakash)의 서발턴에 관한 논의를 빌려 소개한다. 프라카쉬는 “서발턴은 근대 바깥에 있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역사 밖에서 놓으려는 담론 또한 거부한다...”(...[S]ubaltern refuses to be outside modernity, and the discourse that puts him or her outside history...; Katawal 86에서 재인용). 카타왈은 서발턴이 엘리트와 담론의 내부의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는 프라카쉬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엘리트와 서발턴은 서로를 구성하는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밤의 아이들』 속 파드마와 마녀인 파르바티 등을 주변부에 머무는 서발턴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Katawal 87).

카타왈은 자신의 논의에서 서양의 독자들이 살림의 성적 불능에도 불구하고 파드마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파드마는 살림에게 식사를 준비해주거나 그가 아플 때 돌봐주는 등의 헌신을 하는데 카타왈은 이것이 인도의 순장 제도인 사티와 가부장적 제도에 대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닮았다고 본다. 카타왈은 파드마는 인도의 전

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성이 전통적 가치를 따를 것을 강요당한다고 보면 이 작품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타왈도 지적하고 있듯, 작품에서 파드마는 그러한 인도의 전통을 답습만 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에 반하는 전복적 행위를 시도하는 인물로도 그려진다. 파드마가 살림의 성적 불능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살림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말함으로써 기존의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성적 욕구와 청혼을 함으로써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있다(MC 442-43). 카타왈은 이것이 힌두 전통에서 남성이 해야 할 일을 여성인 파드마가 함으로써 파드마가 기존에 존재하던 담론을 뒤집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살림의 서사 내부에서 파드마는 완전히 배제당해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Katawal 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왈의 분석으로는 국가 서사의 측면에서 여성이자 서발턴으로서의 파드마의 개입이 불러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물론 국가적 서사의 차원에서 파드마에 대한 묘사는 탈식민 인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파드마에 대한 여성 혐오적 묘사와 그녀처럼 하위 계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살림의 무신경한 묘사들이 작품에 존재한다. 그러나 작품의 다른 여성 등장인물과는 달리 파드마는 살림의 부적절한 언급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하면서 작품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드마는 서사의 비평가로서 살림이 주변부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한다. 살림은 자신이 직접 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하는 사건을 통해 스스로가 전통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미나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남편과 결혼했다. 그녀가 가진 배경은 서발턴의 정의에는 맞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 아미나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남

편에게 거의 독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항상 생활비를 타기 위해 아미나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고 동시에 여성의 역할에도 충실해야한다는 점에서 서발탄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은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그러나 당시 나의 복수의 마귀는 머리가 두 개였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나는 릴라 사바르마티의 배신을 폭로함으로써 우리 어머니에게도 유익한 충격을 주고 싶었다. 일석이조랄까, 마치 뱀이 갈라진 혀 양쪽에 있는 독니를 하나씩 찔러 넣듯이 두 여인을 한꺼번에 응징하려는 의도였다.

No, I am no longer proud of what I did; but remember that my demon of revenge had two heads. By unmasking the perfidy of Lila Sabarmati, I hoped also to administer a salutary shock to my own mother. Two birds with one stone; there were to be two punished women, one impaled on each fang of my forked snake's tongue. (*MC* 298-99)

살림은 “나의 복수의 마귀는 머리를 두 개 가지고 있었다”(My demon of revenge had two heads; *MC* 298)고 말한다. 이 말은 복수의 마귀가 한 사람을 노린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노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살림의 목적은 분명하게 밝혀진다. 살림은 “릴라 사바르마티의 배신”(the perfidy of Lila Sabarmati)을 사바르마티 중령(Commander Sabarmati)에게 알려주면서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살림은 릴라의 불륜을 폭로하면서 “나의 어머니에게도 유익한 충격을 주고 싶었다”(also to administer a salutary shock to my own mother; *MC* 299)고 말한다. 사실상 살림은 자신의 어머니도 나디르(Nadir Khan)와 불륜을 저

질렀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살림의 어머니와 나디르는 릴라만큼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나디르에게 오던 전화도 살림이 눈치 채고 난 후 끊어버렸고 파이어니어 카페(Pioneer Cafe)에서 나디르를 몇 번 만난 이후 이 두 사람의 접점은 사라진다. 그럼에도 살림은 자신이 노린 것이 두 사람이며 릴라와 살림의 어머니를 동시에 벌하기 위해 사바르마티와의 불륜을 폭로한 것이다. 살림은 어머니 아미나와 릴라를 “두 명의 응징당하는 여성”(two punished women: *MC* 299)라고 표현한다. 게다가 자신의 복수를 “유익한 충격”(a salutary shock: *MC* 299)이라고 쓰고 있는 것도 여성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는 살림의 가족에 닥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살림은 어머니가 전통적 지위에서 벗어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살림은 가정과 남편에 충실하지 않은 여성의 배신이나 불륜은 인정할 수 없으며 성적인 정숙함이야말로 인도의 여성이 지켜야하는 가치인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아니야!” 파드마가 노발대발 소리친다. “어떻게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해요? 그토록 착한 분인데—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님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언제나 그렇듯이 물론 그녀의 말이 옳다. 만약 파드마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후 내가 파이어니어 카페의 때 묻은 유리창 너머로 분명히 목격했던 아미나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양값음을 하려는 수작일 뿐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No!" Padma shouts, furiously. "How dare you suggest? About that good woman-your own mother? That she

would? You do not know one thing and still you say it?"
And, of course, she is right, as always. If she knew, she
would say I was only getting my revenge, for what I
certainly did see Amina doing, years through the grimy
windows of the Pioneer Café. (MC 97)

파드마는 살림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지 않는다. 특히 살림이 불쾌감을 느꼈던 것은 어머니가 나디르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적 쾌감을 느꼈던 것이다(MC 184). 그 순간 그는 한밤의 아이들과 머릿속에서 회의(conference)를 할 수 있는 텔레파시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파드마는 자신의 어머니의 불경한 순간을 묘사하는 것을 두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다”(“You do not know one thing and still you say it”; MC 96)고 비판한다. 살림은 이때의 일이 마치 뱀과 사다리(Snakes and Ladders)²³⁾게임을 보고 인생에 항상 이면이 존재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처럼 살림이 목격한 것은 두고두고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인생에 항상 이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교훈을 살림이 배웠다면 어머니의 일에 대해서 불륜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살림은 딱 잘라서 어머니가 나디르와 부적절한 관계 이외의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파드마는 살림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몰아세움으로써 아미나와 나디르의 관계에 대해 재고해볼 여지를 남긴다. 살림이 목격한 것은 어머니와 나디르가 직접적으로 육체관계를 가졌거나 만난

23) 인도의 전통적인 보드게임의 한 종류이다.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게임으로 사다리는 말(token)을 위로 올라가도록 하고 뱀은 말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한다. 뱀은 피하고 사다리를 통해서 보드의 제일 마지막에 도달하면 이기는 게임인데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인생에서도 뱀과 사다리처럼 급락이 있음을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면이 아니다. 단지 어머니가 나디르를 떠올리며 성적 쾌감을 느꼈던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그러므로 파드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판하는 것은 살림이 여성의 육체에 대한 권리와 욕구를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라고 볼 수 있다. 살림의 아버지가 집에서 여성 비서들을 실제로 희롱하는 것에 아무런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살림의 아미나의 전화통화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파드마가 “화를 내면서”(furiously; MC 97) 살림의 기술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파드마의 개입은 계속해서 살림의 서사가 가지고 있는 여성 혐오적인 측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살림은 자신의 어머니를 두고 정말 어머니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몸이었을지 의문을 가진다(MC 97). 파드마는 그 이면에 놓인 살림의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서 파드마의 분노는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부정한 묘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살림의 판단은 여성의 육체에 대한 권리가 여성 자신이 아닌 남성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기준으로 한다. 살림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릴라의 불륜을 서술함에 있어서 한 번도 릴라와 내연관계 있었던 남성을 부정하다고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릴라의 남편에 초점을 맞추고 사바르마티 중령이 피해자인 것처럼 서술한다. 살림의 서술은 불륜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여성이며 이를 통해 남편이 독점해야 하는 여성의 육체가 다른 사람에 의해 더럽혀지게 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살림의 시각은 여전히 가정 내의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인식과 여성이 인도 내부에서 자신의 육체나 욕망에 대해서도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이 억압 받는 상황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여성은 가정에 헌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때때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드마는 이러한 살림의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과연 그의 어머니

와 릴라에 대한 평가가 정당한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를 남긴다. 파드마의 질문으로 살림의 아미나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살림이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여성을 평가하는 관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파드마는 살림이 불경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여성이 그의 어머니라는 점에도 분노를 느끼고 있다. 사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파드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지하는 듯 보인다. 여성에 대하여 차별적이고 억압적이기까지 한 살림의 관점에는 반대하면서 한편으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요구하는 파드마의 태도는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전통적인 시각을 모조리 버리지 않는 파드마의 태도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전통과의 단절이나 무조건적인 전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드마는 국가 서사가 여성에게 차별적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동시에 막무가내로 전통적인 것에서 탈피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다. 즉, 파드마는 중심/주변 혹은 전통/현대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허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드마의 육체에 대한 살림의 묘사는 여성의 아름다움보다는 역세고 남성적인 묘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두고 살림의 여성 혐오가 드러난다고 평가하는 평자도 존재하지만 사실 이런 장면은 파드마가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녀[파드마]는 부글거리는 피클 통을 온종일 휘저으며 생계를 이어간다. 오늘밤은 무엇인지 맵고 시큼한 양념이 그녀를 화나게 한 모양이다. 허리가 굽고 팔뚝에 털이 좀 많은 그녀가 혼자 파르르 떨고 손짓, 발짓을 하다가 나가버린다. 가엾은 파드마. 온갖 일들이 걸핏하면 그녀를 언짢게 한다. 자신의 이름조차 예외가 아닌 듯 싶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연꽃 여신의 이름을 땄다고 말해주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여신을 주로 ‘똥의 여

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She[Padma] stirs a bubbling vat all day for a living; something hot and vinegary has steamed her up tonight. Thick of waist, somewhat hairy of forearm, she flounces, gesticulates, exits. Poor Padma. Things are always getting her goat. Perhaps even her name: understandably enough, since her mother told her, when she was only small, that she had been named after the lotus goddess, whose most common appellation amongst village folk is 'The One Who Possesses Dung'. (MC 20)

파드마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부글거리는 피클 통을 온 종일 휘젓는다”(stirs a bubbling vat all day for a living; MC 20).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살림은 전통적인 가장의 모습과는 다르다. 오히려 피클 공장에서 일하는 파드마야 말로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드마의 육체는 살림의 육체보다 탄탄할 수밖에 없는데, 파드마가 피클 통을 휘젓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굵은 허리”([t]hick of waist; MC 20), “털이 난 팔뚝”(hairy of forearm; MC 20)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파드마를 살림보다 더 남성성이 두드러진 여성으로 보이게 만든다. 또한 살림은 파드마가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여성이지만 동시에 “온갖 것들이 파드마를 언짢게 한다”(Things are always getting her goat; MC 20)고 덧붙인다. 그리고 “연꽃 여신”(the lotus goddess; MC 20)이라는 뜻을 가진 파드마의 이름이 그녀의 마을에서는 “똥을 관장하는 사람”(The One Who Possesses Dung; MC 20)이라고도 불린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어지는 서술에서 살림은 파드마가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손짓과 발짓”(gesticulates; MC 20)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데 이는 파드마가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준다. 이러한 묘사들이 연결되면서 파드마의 이미지는 어딘지 남성적이고 억세며 다소 깨끗하지 못한 미개한 인물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파드마는 남성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신체적인 특징은 피클공장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가장 적절한 상태이다. 또한 실제로 모든 것이 파드마를 언짢게 하기 때문에 파드마는 살림의 서사에 대해 가장 적절한 조연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똥을 관장하는 여신이지만 똥이 비옥한 거름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연꽃의 여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꽃처럼 정화의 이미지도 함께 가지게 된다. 또한 몸을 통한 오히려 언어와 문자를 초월하는 것으로 파드마가 어느 계층에나 이해될 수 있는 언어를 쓴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파드마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한밤의 아이들』에서 남성의 시각에서 묘사된 여성의 몸이 비하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젠더의 역할과 이에 따른 경계에 대한 전복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파드마에 대한 묘사는 작가인 루시디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루시디는 여성은 조용할 것이라는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어린 시절, 여성 친척들이 남성 친척들보다 두 배 정도 많았으며 항상 집에서는 참견, 다툼, 웃음소리, 여성들의 야망이 가득 차 있었다고 적고 있다.

내가 자라는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에 있는 친지들의 집은 항상 참견과 다툼, 웃음소리, 그리고 여성들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중 얌전한 인도 여성의 스테레오 타입을 닮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While I was growing up, the family's houses, in India and Pakistan were full of the instructions, quarrels, laughter,

and ambitions of these women, few of whom resemble the stereotype of the demure, self-effacing Indian woman. (*Step Across This Line*: 324)

인도 여성의 여아 낙태에 대해 쓴 에세이에서 루시디는 여성 스스로가 여아를 낳지 않기 위해 낙태를 감행하는 인도의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여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루시디가 경험한 인도 여성은 작품에서 파드마로 묘사되는 여성의 모습과 흡사하며 루시디 자신도 작품에서 여성 등장인물을 나타낼 때 내가 알아 왔던 것처럼, 다채롭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한다.²⁴⁾ 이는 루시디가 전통적 인도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품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같이 거칠게 묘사되는 부분들을 두고 여성을 비하할 의도가 있다는 해석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루시디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 속 여성 등장인물들을 두고 여성이 위협적이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얼굴에 사마귀가 나고 수염이 짙어지는 살림의 할머니 나심 아지즈를 보면, 외형은 괴물인 것 같아 보일지만 삼촌이 죽고 할아버지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가문의 식구들을 이끌어 나가 는 여장부 같은 모습을 보인다. 다소 역세 보일 수는 있더라도 할머니를 통해 살림의 가족과 아지즈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된다(MC 324-25). 또한 파르바티도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적 능력에 의해 마녀라고 불린다. 다소 괴기스러운 설정이지만 마녀 파르바티가 없었더라면 살림이 무사히 인도로 돌아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24) In my writing, I[Rushdie] have repeatedly sought to create female characters as rich and powerful as those I have known. The men in my books are rarely as flamboyant as the women. (*Step Across This Line*: 324)

여성의 몸에 대한 괴물적인 묘사나 여성을 무섭게 묘사하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가정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고 순종적이기만 한 전통적인 맥락에서 벗어난 여성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나심과 아미나, 파르바티, 메리와 같은 등장인물이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일을 하고 때로는 역세 보이기까지 그들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인 맥락의 여성적인 것’에서 탈피한 여성이 탈식민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파드마가 서사에 개입하고 할머니와 파르바티와 같은 여성 등장인물들이 서사에서 살림의 생존에 영향을 끼쳐 그가 역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살림의 탈식민의 서사가 전통적인 여성의 범주가 포섭하지 못하는 것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기 보다는 이들이 가진 힘을 긍정하고 포섭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문제와 더불어 파드마가 질문을 통해 환기시키고 있는 것은 주변부로 밀려난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 작품에서 파르바티는 인도의 하위 계층의 삶을 보여주는 여성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살림처럼 자정에 태어난 아이들 중 하나로 마법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 파르바티의 능력은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한밤의 아이들 중 가장 마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르바티의 능력에 의해 살림은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무사히 넘어오게 된다. 파르바티가 살림을 바구니에 넣고 사라지게 해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돕는다.

나는 마녀 파르바티에게 숭고한 환상에 사로잡혀 말했다. “나는 가야만 해. 중대한 문제가 남아있어!” 그러나 나는 그녀의 두 뺨에서 갑작스럽게 돌아오른 상심을 보았고 그녀를 위로했다. “너를 자주 보러 올게. 자주, 자주.” 하지만 그녀는 위로 받지 못했다... 고결한 목적은 내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떠난 이유였다.

...It was in the clutches of this magnificent fantasy that I told Parvati-the-witch, “I must be off; great matters are afoot!” And, seeing the hurt in her suddenly-inflamed cheeks, consoled her: “I will come and see you often. Often often.” But she was not consoled... high-mindedness, then, was one motive for abandoning those who had helped me:... (MC 447-48)

살림이 말하는 “승고한 환상”(the magnificent fantasy; MC 448), “중대한 문제”(great matters; MC 448), 그리고 “고결한 목적”(high-mindedness; MC 448)은 모두 국가 서사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인디라 간디 여사의 독재로부터 인도를 구해야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빈민굴을 떠나기로 결심한다(MC 447). 그의 목적은 달성하기 힘든 환상(fantasy)이라고 표현되지만 파르바티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이것은 중요하고 고결한 목적으로 변한다. 살림 자신도 정부 관료 신분인 자신의 외삼촌의 인맥을 인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자신의 결심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르바티를 떠나려고 한다. 한밤의 아이들 협회에서부터 자신의 “충실한 조력자”(staunchest ally; MC 447)였던 파르바티와 결별을 선언하자 파르바티는 “상심”(hurt; MC 448)을 느낀다. 왜냐하면 인도 혹은 국가를 위한 중대한 목표를 이루려는 과정에 살림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살림은 이 목표를 외삼촌 무스타파(uncle Mustafa)를 통해 이루려한다. 이는 상징적으로 중대한 목적을 이루는 일에 빈민굴에 사는 인도인, 특히나 마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끝까지 살림은 빈민굴에 파르바티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마법사들과 “국가를 지킬 계획”(project of nation-saving; MC 447)을 도모하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그에게 떠날 결심을 확고하게 한 것은 인도의 관리이자 언제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르는 외삼촌의 존재다(MC 447). 국가를 이루고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살림은 하위계층의 사람들을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살림의 원대한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못한다. 무스타파 외삼촌과 소니야 외숙모는 살림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외삼촌은 살림이 생각하는 것만큼 권력이 있는 공무원이 아님이 밝혀진다.

질투: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미치광이 소니아 외숙모의 깊은 질투가 외삼촌의 귓속에 독약처럼 스며들었고, 그래서 그는 내가 선택한 사명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았다.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남자들에게 발목을 잡힌다. 그리고: 보잘것 없는 미치광이 여자들에게.

Jealousy: that was it. The great jealousy of my mad aunt Sonia, dripping like poison into my uncle's ears, prevented him from doing a single thing to get me started on my chosen career. The great are eternally at the mercy of tiny men. And also: tiny madwomen. (MC 454)

살림은 자신의 국가 개혁에 관한 계획을 외삼촌에게 밝히지만 삼촌은 항상 이인자에 머물고 있었고 그 때문에 외숙모는 “질투”(Jealousy; MC 454)에 사로잡혀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만다. 살림은 외숙모의 “질투가 외삼촌의 귓속에 독약처럼 스며들었고, 그래서 그는 내가 선택한 사명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았다” (dripping like poison into my uncle's ears, prevented him from doing a single thing to get me started on my chosen career; MC 454)고 주장한다. 외삼촌도 자신의 계획에 도움을 주지 않은 “보잘 것 없는 남자”(tiny men; MC 454)이지만 이런 외삼촌을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보잘 것 없는

미치광이 여자”(tiny madwomen; MC 454)인 외숙모라고 결론 내린다. 살림은 인도의 정치적인 개혁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외삼촌을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은 위대한 사람인 듯 서술한다. 허황된 계획을 세웠던 살림도 문제이지만 더욱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여성에게 이러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살림의 계획을 돕는 것은 여성이면서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능력을 가진 파르바티이다. 살림은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 파르바티가 외삼촌의 집에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을 들킴으로써 다시 빈민 마술촌으로 돌아오게 된다. 표면적으로 살림이 가난과 궁핍에 살림을 내 몬 파르바티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살림은 이곳에서 자신의 정치적 희망을 실현시켜줄 마술사 픽처 싱(Picture Singh)을 만나게 된다.

마술사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미리 말해두겠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곳이 고향처럼 편하게 느껴졌다. 인도가 믿는 또 하나의 진정한 종교라 말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주의의 가풍 속에서 성장한 내가, 일찍이 상업주의자들을 -버리고- 그들에게-버림받았던 내가 바야흐로 상업주의의 배교자가 되어 공산주의에 열광하면서 시시각각 빨갱게 더 빨갱게 물들어갔다. 그 결과로 이제 구국의 사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더욱더 혁명적인 방법론을 발견하게 되었다.

The magicians were Communists, almost to a man.... And let me say at once that no sooner had I discovered this than I, who had been raised in India's other true faith, which we may term Businessism, and who had abandoned-been-abandoned-by its practitioners, felt instantly and comfortingly at home. A renegade

Businessist, I began zealously to turn red and then redder, ... , so that now my mission of saving-the-country could be seen in a new light; more revolutionary methodologies suggested themselves. (*MC* 457)

살림은 거의 모두가 공산주의자인 마술촌에서 픽처 싱이라는 리더를 만나게 된다. “인도의 또 하나의 종교인...비즈니스중심주의” (India's other true faith...Businessism; *MC* 457)에 사로잡히지 않은 공산주의에 살림은 깊이 매료된다. 자신의 삼촌과 아버지와는 달리 이곳에서 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 살림은 “구국의 사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더욱더 혁명적인 방법론” (mission of saving-the-country could be seen in a new light; more revolutionary methodologies; *MC* 457)을 마술촌의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발견한다. 민중과 직접 소통하고 독재자인 인디라 간디 여사를 반대하는 마술촌의 공산주의는 국가와 연결된 살림에게 편안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곳이 된다. 리더인 픽처 싱은 마술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화합을 상징하는 대표로 살림은 그를 또 다른 아버지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MC* 459).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살림을 이곳으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마녀 파르바티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 구국의 계획과 관련해서 파르바티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성적불구를 들어 자신과 결혼하고자 하는 파르바티를 거절하기에 이른다(*MC* 463). 공산주의자들과 살림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파르바티는 인도와 구국이라는 살림의 중요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고 마치 결혼을 조르기만 하는 여성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런 파르바티에게 다시 주목하도록 하는 역할을 파드마가 하고 있다. 파드마는 파르바티를 “불쌍한 아가씨네요”(Poor girl; *MC* 462)이라고 동정어린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파드마가 파르바티와 살림의 결혼에 대해 관심을 보냄으로써 파르바티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과 인도라는 국가의 관계가 드러나게 된다. 마침내 살림과 파르바티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파드마는 이에 깜짝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뻗뻗하게 굳은 파드마: 빨랫줄처럼 굳은 나의 똥-연꽃 아가씨가 따져 묻는다. “결혼을 했다고요? 하지만 어젯밤만 해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이어나가자 파드마가 서서히 긴장을 푼다. “여자들이 나를 만들기도 하고 망쳐놓기도 했어. 원장수녀님부터 ‘미망인’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나는 늘 남자보다 약하다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이지만!) 여자들에게 휘둘리면서 살았어. 아마 그것도 연결방식 때문이겠지.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바라트 마타도, 우리의 모국 인디아도 여성으로 생각하잖아? 그리고 알다시피 나는 인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Stiffening of Padma: taut as a washing-line, my dung-lotus inquires: “Married? But last night only you said you wouldn't...” Padma uncoils, as I continue: “Women have made me; and also unmade. From Reverend Mother to the Widow, and even beyond, I have been at the mercy of the so-called (erroneously, in my opinion!) gentler sex. It is, perhaps, a matter of connection: is not Mother India, Bharat-Mata, commonly thought of as female? And, as you know, there’s no escape from her.”(MC 465)

파르바티와 살림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파드마는 뻗뻗하게 굳어버린다. 그리고 살림에게 여태까지는 결혼생각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는다. 파드마의 질문은 살림과 자신의 관계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

들고 싶어 하는 그녀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지만 파드마의 질문을 통해 살림과 여성간의 관계가 드러난다. 살림은 파드마에게 “여성들이 나를 만들기도 하고 망쳐놓기도 했다”(Women have made me; and also unmade; *MC* 465)고 고백한다. 자신의 할머니인 원장수녀부터 마술촌에서 만난 미망인(the Widow)까지 살림이 만난 모든 여성들은 살림에게 영향을 끼쳐왔다. 그리고 살림은 이 과정을 통해 여성이 결코 남성보다 약하지 않음을 배웠다고 시인한다. 작품에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모습,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여성을 비하할 목적이 아니라 여성 또한 남성처럼 강할 수 있음을 나타내려는 것을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 관해서도 살림은 인도를 “흔히 우리의 바라트 마타도, 우리의 모국 인디아도 여성으로 생각하잖아?”(is not Mother India, Bharat-Mata, commonly thought of as female?; *MC* 465)라고 되물으면서 인도라는 국가 자체도 여성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no escape; *MC* 465)고 고백한다.

파드마가 살림에게 하는 질문과 요구를 통해 여성과 국가, 그리고 국가 서사를 서술하는 살림의 관계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 밝혀지고 그간 서발턴으로서 살림의 서사에서 제외되는 것 같았던 여성 등장인물들의 존재가 다시 국가와 서사의 흐름에서 재조명 된다. 청자인 파드마의 존재는 여성 등장인물의 괴물성이 여성 서발턴들을 소외시키고 폄하시키며 잊히도록 남겨두지 않고 살림에게 재고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파드마와 파편화된 국가 서사

파드마의 개입과 살림의 서사는 양가성(ambivalence)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특히 탈식민적 맥락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한 바 있다. 파드마의 개입과 살림의 서사의 양가성은 서구의 중심과 주변부가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에 대한 저항이다. 파드마와 살림은 중심과 주변부의 경계를 허물면서 탈식민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두 인물이 보이고 있는 양가적 특징과 작품에서 구축되고 있는 국가 서사와 연관 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로버트 영(Robert J. C. Young)은 바바의 양가성과 모방(mimicry)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항의 의미와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는 바바의 글이 타자의 공간에서 식민 담론의 경계들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보고 있다. 동인도 회사의 예와 같이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활용되었던 통치 체계가 인도에 들어올 경우 생기는 양가성이 식민지 지배자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Young 150). 이는 살림의 서사적인 양가성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양가성은 하나의 경계로 매듭지어지는 안정성을 거부하는 개념이라고 볼 때 영의 양가성의 개념은 작품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 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작품에서 파드마가 가지는 양가성은 규정적인 개념이 가진 울타리를 허물고 울타리 밖에 포섭되지 않은 부분들을 환기시키는데, 영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양가성은 식민 담론이 만들어낸 중심과 주변부라는 개념에 저항한다.

식민지배로 인해 생겨난 혼종성은 살림의 서사의 형식을 통해 드러난다. 살림의 서사는 서양의 역사학과 비슷하지만 한편으로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가적인 효과를 낳으면서 권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혼종성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식민 권력을 약화시키는지 파드마를 통해서 나타난다. 살림의 서사가 서구 역사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만 그것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며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파드마의 존재였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파드마는 살림의 서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질문하며 주변부로 밀려나있는 이중으로 소외된 것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살림의 서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서사의 흐름에 위치시킨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역사학이 될 수 있었던 살림의 서사에 개입함으로써 서사의 형태 자체를 변형시킨다. 파드마는 서구의 담론에서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서사를 형성하는 것에 기여함으로써 살림의 서사 자체에 저항의 의미를 부여한다.

루시디는 자신의 에세이 「글쓰기와 국가에 대한 짧은 글」(“Notes on Writing and the Nation”)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국가의 목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한다고 한다. 그는 몇몇 작가들이 보이는 “비하피즘”(behalfism), 즉 어떤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지도 않았으면서 대변자를 자처하는 태도를 경계하라고 주장한다(*Step Across This Line*: 60). 또한 작가들이 국가의 유혹²⁵⁾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음을 지적한다. 살림에게 누구도 인도의 역사를 대표해서 쓸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점과 살림이 작가로서의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구축할 수 있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그의 서사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일 수도 있다. 그는 자신만의 인도를 만든다는 유혹에 빠져 많은 부분 역사

25) 루시디는 국가와 작가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작가가 지향하는 바와 국가가 지향하는 바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치될 수도 있다. 하지만 루시디는 국가가 자신의 구미에 맞는 작가들과는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서 아닌 작가들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Step Across this Line*: 59). 따라서 여기에서 국가의 유혹이란 국가 원하는 방식의 글을 쓰는 작가를 확대하며 이를 통해 작가의 실제 생각과는 달리 국가를 위한 글쓰기를 하게 만드는 국가의 회유를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루시디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에 대한 것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회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국가가 원하는 글을 쓰는 것도 국가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루시디는 글을 쓰는 작가에게는 국가에 대한 경멸과 사랑이라는 양가적 감정이 동시에 나타난다. 항상 작가가 국가에 대해 애정만을 나타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을 무시하는 것 또한 국가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루시디는 보고 있다(*Step Across this Line*: 58-59).

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파드마의 존재는 살림의 서사를 서양의 역사학과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를 가지게 함으로써 식민 담론에 저항의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설명했 다시피 파드마가 살림의 서사에 더하는 인도의 구전적인 요소를 통해 환기되는 혼종성은 살림의 식민지배와 이로부터의 독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술의 내용과 맞물려 서사 자체가 과연 인도의 것인지 영국의 것인지 정의내리기 힘들게 만든다. 한 마디로 정의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차이들을 파드마는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서양의 사고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탈식민 국가의 정체성과 같이 쉽게 설명하기 힘든 것들의 존재를 드러낸다. 만약 비평가로서 파드마의 역할이 살림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날짜를 바로잡는 등의 기술적인 실수를 수정하는 것에만 그쳤다면 살림의 서사는 역사책으로서 인도의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파드마가 서사에 존재함으로써 살림의 서술은 새로운 탈식민 국가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살림의 몸이 부서진다는 메타포를 통해 드러난다.

청년 시절에 그는 어느 화가와 한방을 썼는데, 그 화가는 자신의 그림 속에 인생사를 송두리째 담으려 했기 때문에 그림이 자꾸자꾸 커지기만 했다. 자살하기 직전에 화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내 꼴 좀 보게. 세밀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상피병에 걸렸어!”

As a young man he[Nadir] had shared a room with a painter whose paintings had grown larger and larger as he tried to get the whole of life into his art. “Look at me,” he said before he killed himself, “I wanted to be a miniaturist and I’ve got elephantiasis instead!” (MC 49)

자신의 인생을 세밀화로 완전히 담으려고 했던 화가는 몸이 자꾸 커지는 상피병에 걸리게 된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한 것이 몸을 거대하게 불어나게 만드는 결과만 남게 되고 화가는 자살로 삶을 마감함으로써 그가 의도했던 세밀화에 대한 불가능성을 보여준다. 발생한 일을 기록하면서 모든 일을 자세히 기술하려는 세밀화의 방식은 특히 살림의 역사 기술 방식과 서로 닮아 있다. 프랭크(Søren Frank)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림의 몸에 생기는 실금이 화가의 상피병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살림의 경우는 자신의 인생의 면면을 자세하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한 몸이 팽창하여 계속해서 실금이 생기고 곧 부서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더 이상 팽창하기 전에 살림은 글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그러나 살림과 세밀화가가 서로 다른 점은 세밀화가의 몸과 그림은 한 없이 불어나기만 했다면 살림의 몸은 팽창의 결과로 금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세밀화가는 자신이 본 것과 표현하려는 것을 추적하면서 상피병에 걸려 몸이 커지지만 살림은 자신의 이야기가 쌓이면서 틈이 생기면서 팽창한다. 팽창의 결과 살림의 몸에는 갈라짐이 생기면서 거기에 틈이 생기게 된다. 틈이 생기면서 갈라진다는 것은 작은 조각들이 만들어 진다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러한 갈라짐을 눈치 채지 못하지만 파드마만은 의사조차 감지하지 못한 그 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드마는 이러한 틈에 대해서 불안감을 나타내지 않는다. 파드마에게는 살림의 간호를 맡아 그를 돌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파드마는 살림에게 결혼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다. 파드마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발끈하여 살림을 떠났음을 상기해보면 결혼을 원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의 결혼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살림에게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를 준다. 파드마는 살림의 병세를 호전시키고자 하지만 한 번 시작된 균열은 멈출 줄을 모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가속화된다. 결말이 다가올수록 살림의 내면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쓰려는 욕망이 커질수

록 틈은 점점 더 분명해진다. 파드마의 청혼에 살림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내비치지만 소용이 없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파드마의 결의에 나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래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녀의 경이로운 의지력 때문에 내 이야기의 결말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녀의 강렬한 열망 앞에서는 균열조차도—심지어 죽음조차도—굴복하지 않을까...“생각해야 할 미래가 있다구요.” 파드마가 나에게 경고한다.

In the burning heat of Padma's determination, I am assailed by the demented notion that it might be possible, after all, that she may be capable of altering the ending of my story by phenomenal force of her will, that cracks—and death itself—might yield to the power of her unquenchable solitude... “There is the future to think of,” she warned me. (*MC* 511)

살림은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다. 살림에게 자신의 서른 번째 생일은 곧 자신의 생이 마감되는 날이다. 그러나 살림은 파드마에 의해 혹시 자신이 죽음을 피해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파드마와의 결혼이라는 사건을 통해 살림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파드마는 살림에게 생각해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를 통해 살림이 자신의 생일 삶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작품이 독립 전후 인도의 과거사를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인도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살림은 “파드마의 강렬한 의지”(the burning heat of Padma's determination: *MC* 511)에 의해 결혼한 후 살림을 돌보고 카슈미르 지방으로 신혼여행을 다

녀오면 그의 병세가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다. 살림은 파드마의 청혼에 대해 그녀의 강렬한 의지가 자신의 결말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마지막 장에 이를 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살림을 사로잡는다. 앞의 바바의 표현을 빌자면 과거의 역사인 교육적인 시간(pedagogical time)과 파드마를 통해 스며드는 현재와 관련된 수행적인 시간(performative time)은 서로 교차하며 서술을 만들어가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제는 살림에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정리하는 자신의 작업의 결말 보다는 그 이후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살림은 불가능해보이고 실패할 수도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가 차이를 만드는 파드마에게 스며들어 미래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살림은 파드마의 청혼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서사 전체에 대한 파드마의 신뢰에 의문을 가진다. 살림이 파드마에게 서사를 읽어주는 이 과정은 탄탄한 몸을 가진 파드마에게 자신의 서사를 스며들게 함으로써 자신은 죽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는 살아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살림의 열망이기 때문이다. 살림은 자신의 몸을 “텅 빈 피클 병”(an empty pickle-jar: MC 13)에 비유하면서 역사를 써나가는 과정이 비어 있는 피클 병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른 개의 사건을 서른 개의 피클 병에 담아 선반 위에 올려두는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이다. 그러나 원래 역사를 담고자 했던 살림이라는 피클 병은 금이 가 조각나기 일보직전이다. 살림이 피클 병에 담았던 과거는 자신의 죽음과 함께 조각 나 사라져 버리거나 완전히 잊혀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파르바티와 함께 지냈던 마술사들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비교의 대상이 없이 현재에만 몰두하는 것을 살림은 바라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는 망각해도 좋을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살림에게는 파드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고 자신의 아들인 아담 시나이(Aadam Sinai)와 함께 지속시켜주기를 원한다.

살림에게 이러한 욕망이 있다는 점을 주지할 때, 파드마가 피클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살림이 희망하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살림이 바라는 역사는 바로 변화의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피클을 만드는 파드마는 문자 그대로 피클 병을 채울 내용물을 만드는 사람이다. 피클 병을 채우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파드마는 살림이 해왔던 작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살림이 파드마가 피클 공장에서 일하고 피클을 휘젓는 파드마를 묘사한 것은 파드마가 살림 대신 피클 병을 채우게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빈 병을 채우는 것이 다른 음식도 아니고 피클이라는 설정은 원래의 재료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살림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희망하고 있는 바와 비슷하다. 피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이 변하기도 하지만 상한 음식 취급을 받지 않는다. 피클이 원래 재료의 맛을 변형시켜 새로운 음식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이 살림이 파드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역사를 파드마라는 피클 통에 담아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담겨 있는 역사가 가진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의 특별 조리법: 나는 지금까지 그것들을 아껴두었다. 피클공정의 상징적 가치에 대하여: 인도 전 국민을 낳은 난자 6억 개를 표준규격의 피클 병 하나에 모두 담을 수 있다. 정자 6억 마리는 숟가락 하나로 퍼 올릴 수 있다.... 나는 내 기억을 영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에는 필연적으로 왜곡이 따르기 마련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My special blends: I've been saving them up. Symbolic value of the pickling process: all the six hundred million

eggs which gave birth to the population of India could fit inside a single, standard-sized pickle jar; six hundred million spermatozoa could be lifted on a single spoon.... I have immortalized my memories, although distortions are inevitable in both methods. We must live, I'm afraid with the shadows of imperfection. (*MC* 529)

자신의 기억은 영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 변형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처트니화와 피클링은 완전해 보이면서도 불완전한 형태의 서사 방법이다. 살림은 인도인의 역사를 처트니화하고 시간을 피클화 하는 것이 전 국민의 난자와 정자 6억 개를 실제로 담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인도인의 역사를 표준규격의 피클 병에 담으려는 총체화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6억 개의 인생을 담으려했던 그의 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6억의 인구에 훨씬 못 미치는 한밤의 아이들 협회(Midnight Children's Conference: M.C.C.)의 아이들도 살림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각계각층의 아이들이 모여든 500명 남짓의 협회조차도 살림은 완벽하게 피클링하지 못했다. 500명의 아이들은 해산되어 흩어지고 말았고 실제로 만났던 협회의 회원인 파르바티도 살림의 피클 병에 완벽하게 담기지 않고 살림의 곁을 떠나게 된다. 총체화의 실패를 통해 그는 항상 불완전함과 왜곡이 역사를 담고 있는 피클 병에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앞서 밝혔던 파드마의 모순적인 측면과 양가성과 연결된다. 역사란 논리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서 더욱 모순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피클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 살림은 자신이 설명하고자 했던 인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제 순수성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그는 자

신이 만든 서사 피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MC 531).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왜곡의 현상도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살림이 이제는 순수성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말 또한 그가 식민지 지배자의 문화와 인도의 문화, 그리고 여러 계급이 섞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살림은 형태와 의미를 같은 것으로 보고 이것이 피클을 만드는 데에 중요하다고 말한다(MC 531). 불완전함을 역사와 정체성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살림은 많은 인도인이 자신의 만든 불완전한 역사를 공유하기를 바란다. 살림의 역사는 불완전의 그늘과 양가적 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매끈하고 논리적으로 다듬기 보다는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한다는 것을 살림은 깨닫는다. 피클공장에서 피클을 생산하는 과정에 새로운 국가에 대한 살림의 생각은 처트니화되고 피클화되어 그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 모든 병에 담기게 된다(MC 530).

끊임없는 불멸성과 유의미한 죽음은 살림의 아들인 아담 시나이를 통해 유지된다. 살림은 아담의 탄생을 자신의 탄생과 거의 비슷하게 묘사한다. 살림과 같이 아담도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 의해 양육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담의 혈통은 살림과 파드마가 만들어낸 인도의 정체성과 어울린다.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순수하고 단일한 상태에 집착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자신의 부모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다양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살림은 자신과 비슷한 아담을 통해 자신의 바람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런 아담을 앞으로도 계속 양육해줄 파드마와의 결혼에 생각이 미친다. 파드마와의 결혼은 살림에게는 피클병 속에 담을 수 없는 미래이다(MC 532). 이들의 결혼식은 독립기념일이자 살림의 생일에 거행될 예정이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날의 축하는 살림의 죽음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산산이 부서지는데, 살림의 분열, 나는 봄베이의 폭탄이

니, 내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라. 군중의 무시무시한 압력에 뼈가
쪼개지고 으스러지고, 나는 뿔조각이 가득한 자루가 되어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데 ... 다만 부서져버린 인간 하나가
조각난 몸뚱이를 길바닥에 흩뿌리며 스러져갈 뿐인데, 왜냐하면 나
는 지금까지 아주-많은 너무 많은-사람이었으므로 ... 열두 번의
종소리, 그리고 해방.

[...] cracking now, fission of Saleem, I am the bomb in
Bombay, watch me explode, bones splitting breaking
beneath the awful pressure of the crowd, bag of bones
falling down down down, ... only a broken creature spilling
pieces of itself into the street, because I have been
so-many too-many persons ... and at last somewhere the
striking of a clock, twelve chimes, release. (MC 533)

살림은 열두 번 종이 치는 순간 역사와 수갑 채워졌던 운명에서 해방된
다. 그의 해방은 그의 몸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살림은
파드마에게 말로 역사를 전달했듯 많은 인도인들이 자신이 만든 새로운
역사를 공유하기를 소망한다. 메리의 피클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단
순히 먹는 행위만을 통해 살림은 주변부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자신의
서사를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6억의 인도인에
게 잡아먹히는 이미지를 남긴다. 그의 몸은 너무 많은 사람을 담고 있었
기 때문에 폭탄처럼 폭발한다. 그리고 이런 운명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아
들이 아닌 아담²⁶⁾을 통해, 또 그 후대에까지 이르러 자신이 인도에 가지

26) 살림이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아담 시나이의 생물학적 부모는 마녀 파르바티
와 시바이다. 살림의 성적불구임을 알아챈 파르바티는 시바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고 살림과 결혼한다. 살림은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파르바티
와의 결혼 후 태어난 아이인 아담을 자신의 아들로 맡아서 키운다. 그렇기 때문에

고 있었던 비전이 이어져갈 것임을 암시한다. 살림의 몸은 폭탄처럼 폭발하여 산산조각 나겠지만 이것은 국가 서사를 완성하겠다는 그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의 몸의 조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조각나면서 각각 다른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인도인을 상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드마의 개입이 스며든 살림의 국가 서사는 상상된 개념인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가진 양가성을 드러내면서 현재의 역사만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도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한다.

아담 시나이는 살림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의 아들이 아니다.

5. 결 론

『한밤의 아이들』에서 파드마의 역할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살림이 제시하고자 하는 탈식민 인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 데에 핵심적이다. 파드마의 개입은 그 자체로 서사에 모순적인 성격을 부여하며 주변부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품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 정체성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드마는 차이를 부각시키고 주변부를 환기시키면서 살림의 서사에 대해 양가적인 위치에 있다. 바바는 “진정한 것은 항상 출현의 과정이 갖고 있는 양가성에 의해 드러나고 알려진다”(The 'true' is always marked and informed by the ambivalence of the process of emergence itself; LC 33)고 말한 바 있다. 파드마가 보여주는 양가적 특징이란 살림의 역사 서술을 보다 진정한 것으로 향하도록 하는, 다시 말해 살림 스스로가 원했던 방향의 역사 서술에 가깝게 다가가는 데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파드마의 존재가 작품에서 가지는 의의는 그것이 살림의 서사를 추동하고 때로는 지연시키면서 탈식민 인도 역사의 알레고리인 살림의 서사에 혼종적 특징을 가진 새로운 형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파드마의 개입은 인도의 서사의 완성과 알레고리로서 탈식민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살림의 서사의 흐름에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함으로써 파드마는 살림의 서사가 탈식민 인도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다 더 사실적으로 반영하게 하였고, 그리하여 탈식민 인도가 가진 정체성을 새로이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살림의 서사에 구체성과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써 살림의 서사가 인도의 역사의 알레고리가 될 수 있음을 파드마는 증명하고 있다.

또한 파드마는 탈식민 인도에 존재하는 서발턴과 주변부를 환기시킨

다. 서양의 기존 담론이 가진 중심과 주변이라는 개념을 해체하는 파드마는 이를 통해 살림의 서사에서 배제될 수도 있었던 서발턴들을 서사 안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파드마 자신과 여성 등장인물들이 가진 괴물적이고 남성적인 모습이 여성을 비하할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발턴들이 국가 서사를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파드마는 살림에게 끊임없이 이들의 존재를 환기시킨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이를 통해 본 작품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 서사가 단일한 개념, 즉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을 통해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포섭하고 있지 못한 것들에 눈을 돌리고 이들을 서사에 포용하려는 노력이 탈식민 인도에 필요한 것임이 파드마와 살림이 만들어 내는 양가성을 통해 드러난다. 파드마의 개입과 서발턴에 대한 환기를 통해 살림의 서사는 단일한 국가 개념을 거부하고 식민 지배 이후 나타난 탈식민 인도가 지향해야 할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성공한다.

파드마라는 청자의 존재를 통해 인도의 역사, 국가 서사에 관해 살펴보고자 했던 본 논문은 작품의 방대함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먼저 작품의 여성 등장인물들이 국가 서사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살림이 말했던 여성이 자신에게 끼친 영향력을 고려해보았을 때, 청자인 파드마를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성 등장인물들이 살림의 서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특히 여성이 가진 괴물성에 관한 깊은 분석이 이루어 졌더라면 여성과 국가 서사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한 분석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서발턴의 개념을 주로 여성 등장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서발턴은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이다. 따라서 여성

청자인 파드마를 분석함에 있어 그 범위가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다. 작품에서 계급적으로 서발턴에 속할 수 있는 뱃사공 타이(Tai), 픽처 싱, 그리고 미망인과 국가 서사와의 관계를 깊게 논의 했더라면 작품이 지향하고자 하는 인도의 역사의 방향에 더욱 심도 깊은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작가인 루시디가 서구에서 가진 입지에 의해 오리엔탈리즘을 강화한 다거나 혹은 서구와 결탁한 작가라는 오해에서부터 작품이 여성 혐오적이라는 오해들이 탈식민 국가와 여성문제, 혹은 서발턴 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면밀하게 분석된다면 분명히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비록 완전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같은 후속 과제가 수행된다면 작품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 서사는 여러 탈식민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인 고민과 쉽게 풀리지 않는 정체성 문제에 답을 내리는 데에 실마리를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인 용 문 헌

1차 문헌

Rushdie, Salman. *Midnight's Children*. New York: Random House, 2006. Print.

2차 문헌

Ahmad, Aijay. "Jameson's Rhetoric of Otherness and the 'National Allegory.'" *In Theory: Classes, Nations, Literatures*. London: Verso, 1992. Print.

Alvarez, Galván Enrique. "Children's Voices At Midnight: Can The Subaltern Speak In Rushdie's Narrativisation Of History?." *Estudios Ingleses De La Universidad Complutense* 17.1 (2009): 115-25.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19 Feb. 2014. Web.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Print.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Key Concepts in Post-colonial Studies*. London: Routledge, 1998. Print.

Bandolph, Jacqueline. "Askaro, Saleem and Askar: Brothers in Allegory. *Commonwealth Essays and Studies*. vol.15 (1992): 45-51. Print.

Banerjee, Ashutosh. "Narrative Technique in *Midnight's Children*." *Commonwealth Review*. vol.1, (1990): 23-32. Print.

- Baty, Nancy. "The Art of Suspense: Rushdie's 1001 (Mid-)Nights." *ARIEL*. Vol.18.3 (1987): 49-65. Print.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2nd ed. New York: Routledge, 2004. Print.
- _____. *Step Across This Line: Collected Nonfiction 1992-2002*. *Nation and Narration*. ed. Homi K. Bhabha.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0. Print.
- Brennan, Timothy. *Salman Rushdie and the Third World: Myths of the N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Print.
- Buchholz, Laura. "Unnatural Narrative in Postcolonial Contexts: Re-reading Salman Rushdie's *Midnight's Children*." *JNT*. vol.42.3. (2012): 332-51. Print.
- Byrne, Eleanor. "Salman Rushdie and the Rise of Postcolonial Studies: *Grimus*, *Midnight's Children* and *Shame*." *Salman Rushdie*. Eds. Robert Eaglestone and Martin McQuillan. London: Bloomsbury, (2013): 21-33. Print.
- Cronin, Richard. "The Indian English Novel: *Kim* and *Midnight's Children*." *Rushdie's Midnight's Children*. ed. Meenakshi Mukherjee. Delhi: Pencraft International, (1999): 134-48. Print.
- Cundy, Catherine. "*Midnight's Children*." *Salman Rushdie*. New York: Manchester UP, 1996. Print.
- Dayal, Samir. "Talking Dirty: Salman Rushdie's *Midnight's Children*." *NCTE*. vol.54.4 (1992): 431-45. Print.
- Frank, Søren. "Salman Rushdie." *Migration and Literature: Günter Grass, Milan Kundera, Salman Rushdie, and Jan Kjærsta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rint.

- Gurnah, Abdularzak. *Cambridge Companion to Salman Rushdie*. New York: Cambridge UP, 2007. Print.
- Hawes, Clement. "Leading History by the Nose: The Turn to the Eighteenth Century in *Midnight's Children*." *MFS*. vol.39.1 (1993): 147-68. Print.
- Jani, Pranav. *Decentering Rushdie: Cosmopolitanism and the Indian Novel in English*. Columbus: The Ohio State U, 2010. Print.
- Kane, Jean M. "The Migrant Intellectual and the Body of History: Salman Rushdie's "*Midnight's Children*." *Contemporary Literature*.7.1 (Spring, 1996): 94-118. Print.
- Katawal, Ubaraj. "In *Midnight's Children*, the Subaltern Speak!." *Interdisciplinary Literature Studies*. 15.1, University Park: Penn State UP, 2013. Print.
- Kortenaar, Neil Ten. *Self, Nation, Text in Salman Rushdie's Midnight's Children*. McGill-Queen's UP. 2005. Print.
- Mahanta, Aparna. "Allegories of the Indian Experience: The Novels of Salman Rushdi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9.6 (1984): 244-47. Print.
- Natarajan, Nalini. "Woman, Nation, and Narration in *Midnight's Children*." *Rushdie's Midnight's Children: A Book of Readings*. ed. Meenakshi Mukherjee. Delhi: Pencraft International, 1999. Print.
- Rushdie, Salman. *Imaginary Homelands: Essays and Criticism 1981~1991*. New York: Penguin, 1992. Print.
- _____. *Step Across This Line: Collected Nonfiction 1992-2002*. New York: Random House, 2002. Print.

- Smale, David. "‘How Are We to Understand My Too Many Women?’: The Issue of Gender in Rushdie’s Fiction." *Salman Rushdie: Midnight’s Children, The Satanic Verses*. ed. David Smal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1. Print.
- Spivak, Gayatri Chakravorty.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s. Cornelison and Lawrence Grossberg. Urbana: U of Illinois P, 1998. Print.
- Trivedi, Harish. "Salman the Funtosh: Magic Bilingualism in *Midnight’s Children*." ed. Meenakshi Mukherjee. Delhi: Pencraft International, (1999): 69-94. Print.
- Upstone, Sara. "Domesticity in Magical-Realist Postcolonial Fiction: Reversals of Representation in Salman Rushdie’s ‘Midnight’s Children’." *Frontiers: A Journal of Women Studies*, Domestic Frontiers: The Home and Colonization. U of Nebraska P. 28.1 (2007): 260-84. Print.
- Verma, Charu. "Padma’s Tragedy: A Feminist Deconstruction of Rushdie’s *Midnight’s Children*," *Feminism and Recent Fiction in English*. Ed. Sushila Singh. New Delhi: Prestige (1991): 155-462. Print.
- Watson, David. "Borderland Fiction: Writing the Nation in Salman Rushdie’s *Midnight’s Children*." *JLS*. vol.14, June (1998): 213-25. Print.
- Weigel, Deborah. "Picasso, Rushdie, and the Fragmented Woman." *Women and Contemporary World Literature: Power, Fragmentation, and Metaphor*. New York: Peter

Lang, 2009. Print.

Weickgenannt Nicole. *Salman Rushdie and Indian Historiography Writing the Nation into Being*.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Print.

Yaqin, Amina. "Family and gender in Rushdie's writing." *Cambridge Companion to Salman Rushdie*. New York: Cambridge UP, 2007. Print.

Abstract

A Study of Padma in *Midnight's Children* as a National Narrative

Heejeong Si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how Padma, one of the female characters in Salman Rushdie's *Midnight's children*(1981) plays her role regarding the narrative in the novel. The novel is regarded as allegory of India's national narrative or history and deals with various postcolonial situations after India's independence. Saleem who is a narrator and male protagonist claims that his birth and life are undeniably related to Indian history and that his life has close relationship with historical events after India's independence. Based on this relationship between Saleem and India's history, many critics agree to analyze Saleem in the light of national allegory,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Padma. Padma's influence on the national narrative and history is the main concern of this study.

The first chapter concentrates on how Padma's intervention builds postcolonial form of India's national narrative by pushing and holding up Saleem's writing. Analyzing her intervention does not intend to make linear flow of narrative by cutting digression,

rather it does to prevent dogmatic narrative written by Saleem. The goal of this chapter is investigating Padma's intervention and her role as an audience which give postcolonial significance to the novel.

The third chapter discusses how Padma's intervention arouses the margins and the alienated in magnificent historical narrative. Padma keeps intervening by continuously questioning and casting a doubt on Saleem's narrative and then stirs up things that nation-making narrative misses, and such her intervention reveals that the nation can never be homogeneous. Her intervention needs, however, to be discussed in detail because it averts one's attention toward parts that the national narrative easily ignores.

The last chapter focuses on the ways how Padma's intervention completes the narrative, which Saleem ultimately tries to suggest for postcolonial India. Saleem's cracked body offers a good hint for this discussion. His body is proved to be not the failure of the united formation of national narrative but the new vision for postcolonial India, and it is this vision that shows the goals for which postcolonial India should aim.

Keywords: Salman Rushdie, *Midnight's Children*, Padma, Saleem, National Narrative, Postcolonial women, Postcolonial national narrative, Nation-making narrative and women

Student Number: 2011-23081